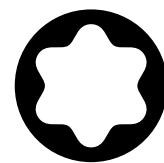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APRIL 2024
vol. 268

100 Years of Meisterstück.
Celebrating an Icon.



Product shown is a vintage piece, not for sale.



MONTBLANC



AUDEMARS PIGUET
Le Brassus

SEEK BEYOND
상상 그 너머의 세계

빛이 드러내는 골드의 형태

미묘한 새로운 샌드 골드 합금으로 제작한
로열 오크 셀프와인딩 플라잉 투르비용 오픈워크를 소개합니다.





Style 조선일보

APRIL 2024
#268

100 Years of Meisterstück.
Celebrating an Icon

MONTBLANC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필기구가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 표지 속 제품은 1952년 첫선을 보인 마이스터스틱의 아이콘, 마이스터스틱 149의 초기 모델로 애교한 유산형 디자인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컬러와 스텐로이드 보드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발전 문화를 상징으로 영감을 선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문의 1877-5408



Style

조선일보
Issue.268 April 2024

- 14 **그래도 변화는 계속된다,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 2024** 아트 바젤 홍콩에는 많은 객이 돌아왔다. 바티 이들도 있고 때론 이들도 있지만, 마치 상춘객처럼 봄에 이 도시를 다시 찾은 다국적 아트 피플의 물결을 보며 적어도 현대미술의 상업적 플랫폼 도시로서는 브랜드 가치를 아직 잃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혼혈인 자유무역항이자 무관세 지역으로 다문화로 포용할 수 있는 홍콩의 특징점은 그만큼 강력하다. 게다가 그 패권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비단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패 여러 층위에서 이뤄지고 있음이 여실히 느껴졌다. 각종 문화 예술계, 패션계 인사가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여럿 개시되고, 글로벌 경매업체들이 재장비를 거쳐 새 사업장을 내세우며, 크고 작은 브랜드와 갤러리가 저마다 다른 결의 변화를 추진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철주야 '열일' 하는 개개인의 열정이 이 도시를 잠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 18 **MASTERY OF TIME** 세계의 모든 시간을 누비는 비즈니스맨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줄 파페추얼 캘린더 원치
- 19 **IN THE JUNGLE** 고귀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애니멀 모티브 주얼리 컬렉션.
- 20 **100 YEARS OF MASTERPIECES** 인간 기록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브랜드 '몽블랑'의 역사, 마이스터스틱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다. 독일의 장인 정신과 알프스 꼭대기에 오르는 정복자들의 상상성을 담은 걸작의 탄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의 에디션으로 이를 축하한다.
- 22 **LOVE RECTANGLE** 마드모아젤 사넬이 디자인한 역사적인 2.55 백에 뿌리를 두고 칼 라커펠트와 버지니 바이르를 거쳐 발전하고 있는 11.12 백은 현대 여성의 아이코닉 백으로 자리 잡았다.
- 26 **PERFECT FOR NOW** 이번 시즌, 보다 하하고, 보다 합한 남자들의 재킷 스타일.
- 34 **TRAVEL MAKER** 출장 혹은 여행길에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견고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의 트롤리 컬렉션.
- 35 **SPIRIT OF JOURNEY** 여행을 더욱 살리게 만들어줄 멋진 러그지와 실용성이 돋보이는 데일리 백 시리즈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경험하고 싶다면 리모와가 매력적인 답안이다. 수도권 내 신세계백화점에 최초 오픈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리모와 매장에서 유구한 장인 정신과 현대 기술의 정밀성으로 완성한 리모와의 아이템과 헤리티지를 경험할 수 있다.
- 36 **LIGHT BREEZE** 번덕스러운 봄 날씨에 효과적이고 패셔너블하게 대응할 수 있는 럭셔리 스프링 아우터.
- 37 **SPRING NUANCE** 한결 따뜻한 봄바람과 청량한 하늘로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때, 기분 좋은 새 뉴앙스를 선사할 파퓰러 셀렉션.
- 38 **EDITOR'S PICK** 바쁜 현대인들의 자전 피부를 생기 있게 만들어줄 뷰티템 13.



Faubourg calling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원운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경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영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 신영민 sjm@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 김현기 hgkim@chosun.com
 채우 노연경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타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당로 413 현대 하이패션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12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시길요. stylechosun.com



SWAROVSKI



HAIR, VOLUME UP!

가늘고 힘없는 모발에 최상의 솔루션을 선사할 헤어 뷰티 아이템 4. (우부터 차례대로) **발몽을 파우즈 스파 브러쉬 미니** 애프터 힐과 나일론 모를 사용한 브러시로 빗질 시 모의 둥근 볼 포인트가 두피를 마사지해 건강하고 윤기 나는 모발을 완성한다. 7만8천원. 문의 02-515-0960 **겔랄 아베이 로얄 스킨프렌 헤어 유스 오일 인세르** 천연 성분인 꿀을 담은 다이나믹 블랙 리페어 기술로 헤어 뿌리부터 영양을 공급해 최상의 헤어 컨디션을 선사한다. 50ml 20만7천원. 문의 080-343-9500 **발몽 리카비탈 마스크** 잦은 헤어 스타일링으로 지친 두피를 케어해주는 활성 성분 케리틴, 세라마이드를 함유해 머릿결을 건강하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200ml 23만원. 문의 070-4352-5203 **다비네스 리플링팅 헤어 필러 수퍼파워브** 노화를 억제하는 파이토슈티컬 성분과 보습 효과를 위한 히알루론산까지 다재 다능한 머릿결을 만들어준다. 100ml 6만3천원. 문의 1644-449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영림**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시간의 미학

손목에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선사해줄 골드 포인트의 위치를 추천한다. 사철의 아이코닉한 위치 J12 위치 칼리버 12.1이 그 주인공. 기존 견고한 블랙 및 화이트 세라믹 소재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그대로 유지하고, 크라운과 다이얼, 핸즈, 인덱스 등에 18K 옐로 골드를 디테일하게 매치했다. 하우스의 워치메이킹 기술을 보여주는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12.1로 작동한다. 각 2천3백70만원대.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HAVE FUN!

독특한 디자인으로 재미를 선사할 패션 아이템.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재사용 가능한 테크니컬 컵 4개와 실루엣 스카프, 탈착 가능한 홀더, 캔버스 소재 4구 캔티이너 박스로 구성된 FF 컵 홀더 1백35만원대 **텐디**. 문의 02-544-1925. 부드러운 양주과 골드 컬러 메탈 소재의 워치 스트랩을 더한 별 모티브의 핑크 백 가죽 미ջ **샤넬**.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골퍼 일라스트 디자인으로 우트를 다한 폴로 골프 실크 크로아프 타이거 미ջ **폴로 로얄 로빈**. 문의 02-6004-022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영림**



성수동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디올 성수를 방문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됐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미르야 그라치아 치우리가 디자인한 디올의 2024 S/S 컬렉션을 디올 성수에서 선보이기 때문. 이번 컬렉션을 위한 공간은 트알 드 주이 쉐레이(Tal De Jouy Soley) 패턴으로 가득하며 부티크 코너 밖에 설치한 태양 모형의 3D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또 하우스의 독보적인 헤어티지와 코드가 담긴 레디투웨어부터 슈즈, 액세서리뿐 아니라 이번 S/S 컬렉션의 메인 백인 크림을 꺼내주 디테일의 블랙 컬러 레이디 디올 백을 선보여 특별함을 더했다. 디올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2024 S/S 컬렉션을 디올 성수에서 직접 경험해보길 추천한다. 5월7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길 7 문의 02-423-2133

MAGICAL PALACE



우리가 풍경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조경의 미학'으로 한 획을 그은 선구자 정영선의 개인전이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식목일인 4월 5일 막을 올린 <정영선: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전이다. 한국 1세대 조경가로 '땅 위에 시를 쓰듯' 반세기를 살아온 정영선은 커리어에 전 환경점이 된 호암미술관 '하월'(1997)을 위시해 아사히선수촌(1986), 여의도샛강생태공원(1997), 선유도공원(2001), 서울식물원(2014), 경춘선숲길(2015~2017), 두내원(2025) 등 수많은 주요 공공 프로젝트를 맡아왔다. 1970년대 대학원생 시절부터 현재 진행형인 프로젝트까지 60여 개 국내외 사례를 총망라한 이번 전시에서는 조경 설계 도면과 사진, 모형, 영상, 수채화, 청사진 등 기록 자료 5백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크게 7개의 '무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영선의 조경이 그려하듯 경계가 느슨한 최소한의 구획을 통해 관람객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각 프로젝트의 맥락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전시의 초점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작가의 태도와 담백한 아름다움을 실존하는 '자연'의 미학에 맞추고 있다. 이번 전시를 기념해 서울관 야외 종관마당과 전시마당에는 실제로 한국 고유의 자생식물을 식재한 정원을 조성해 관람객에 휴식처를 선사하고 있기도 하다. 8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프로젝트 애기를 하며 열정의 눈빛을 내뿜는 정영선 조경가는 "우리 산천은 다 정원이라고 강조했다. 9월 22일까지.

천천히 내려가는 시



BRILLIANCE ON ME

피부에 활기를 불어넣고 빛나는 피부 톤을 선사해줄 뷰티 라주얼, 사철의 수블리마지르 플루이드를 소개한다. 강력한 스킨케어 효과를 부여하는 수블리마지의 귀중한 핵심 성분으로 알려진 폴리프락서닌 과정을 가진 바닐라 플레-몰리야와 루쿠 씨앗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깊숙이 수분을 채워주고 유분 레벨을 관리하는 데 탁월하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수분감, 피부 편안함, 주름, 탄탄한 피부, 균일함, 피부 강화, 광채 등 사철 연구소에서 정의한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 수블리마지르 플루이드가 집중 작용한다는 것. 가볍고 부드러운 포뮬러로 번들거림을 줄이고 모공 개선 효과를 선사해 피부가 부드럽고 매끈하여 균일해 보일 뿐 아니라, 실크한 감촉과 함께 매트 파우더로 마무리된다. 50ml 44만15천원. 문의 080-805-9638

위대한 협업

스위스 워치메이킹 장인 오데마 피게 (Audemars Piguet)가 미국의 가수이자 기타리스트 존 메이어(John Mayer)와 합작해 스페셜한 로열 오크 파메추얼 칼리버 워치를 선보인다. 시계 애호가이자 수집가로 유명한 존 메이어의 아이디어에 따라 별이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을 재현한 디테일한 크리스털 스카이라이프이 돋보인다. 1978년에 제작된 오데마 피게 칼리버 5134를 탑재한 미저랑 한정판으로 오데마 피게 역사상 큰 의미를 지니며, 파메추얼 칼리버 기능을 더해 최상의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로서의 품격을 보여준다. 기술적 기쁨과 미학적 디자인, 그리고 역사적 의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 워치는 2백 개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문의 02-553-1351



순수의 시간

순수한 화이트를 담은 주얼리 4.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라기 다비네스 드림** 로즈 골드 소재에 말라카이트 장식과 다이아몬드 패배 세팅으로 완성한 링 5백80만원. 문의 02-6105-2120 **반클리프 아펠 루 비비클라이 비트윈 더 팔거 링**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와 마다모브릴, 두 가지 다른 소재로 완성한 나비 디자인의 링 2천8백70만원. 문의 1877-4128 **소피에 하트 컬렉션 링** 자개로 완성한 아이코닉한 하트 모티브 가운데 1개의 무빙 다이아몬드 0.05캐럿을 더해 포인트를 주었다. 1천2백72만원. 문의 02-6905-3390 **피아페 포제션 링** 18K 핑크 골드 소재에 90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1캐럿 하트 세팅으로 포인트를 부여한 링 1천7백만원대. 문의 02-540-2297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영민**



LOVELY CHIC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일수록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취향별로 매치할 수 있는 에르메스의 두 가지 패션 액세서리를 소개한다. 볼드하면서도 모던하고 심플한 포인트가 필요하다면 에르메스의 상징인 H 자로 디자인한 컵프 브레이슬릿을 추천한다. 1970년 모달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골드 도금 소재에 핑크 컬러 컵프 스카인으로 완성했다. 1백22만원. 애플리케이션을 사랑하는 에르메스만의 위트 있는 디자인을 녹여낸 이어링은 라블리한 무드를 연출하기에 제격.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숄라 모티브인 말발굽과 아이스크림 일라스트를 담고, 골드 도금 소재에 프론팅 에-멜로 완성했다. 1백12만원. 문의 02-542-6622

UPTOWN LADY

1백년간 이어온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탄생한 독창적인 노하우와 정인 정신, 그리고 우수한 소재까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가방, 로로피아니의 룸(Loom) 백을 소개한다. 비틀의 헤들 바위로 원인이 담긴 듯한 디자인과 장인의 워크숍을 연상시키는 메탈 바가 특징인 룸 백은 유행을 타지 않는 실용적이고 모던한 실루엣으로 소지품을 넉넉히 보관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또 사다리꼴 플랩과 더블 핸들 디자인으로 편안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모던하면서도 차분한 매력을 자랑한다. 여기에 유행의 둥근 모서리와 LP 이나셀을 가진 금속 잠금장치는 백을 돋보이게 해준다. 최상의 숄라까지 소재 외에도 빙수와 얼룩 방지 처리한 라넨 캔버스 소재와 앤디 코트 소재의 룸 백도 함께 선보인다. 문의 02-6200-7799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 2024

그래도 변화는 계속된다

#아시아 현대미술 허브 자리를 지켜냈다 도시의 의미

● ‘브랜드 홍콩’은 견재할 것인가? 수년에 걸쳐 하늘길을 자유롭게 오가는 지구촌 여행자들의 삶에 고평을 채운 팬데믹 기간, 이 질문을 둘러싼 우려는 더 깊어졌던 게 사실이다. 홍콩에 터를 잡고 살던 많은 국의 거주자가 떠났고, 경쟁 구도를 좋아하는 언론에서 부추기기도 했듯 그동안 아시아의 문화 예술 허브라는 타이틀을 두고 여러 이웃 나라 도시들이 대항마 내지는 복병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봄, 헛수로 4년 만에 다시 홍콩을 찾았을 때 고층 건물이 뿔뿔하게 들어선 이 수직의 도시는 마치 그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바쁜 호흡으로 복작거렸지만, 뭔가 ‘궁기’가 다르다는 느낌도 있었다. 여차와 연례행사 정도로 들러 잠시 머물다 가는 타지인의 시선이겠지만, 당장 글로벌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만 봐도 규모가 줄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다국적 인파가 넘치기보다는 주로 아시아인으로 복작거린 풍경 탓도 있었을 것이다.

●● 그래서 올봄은 걱정 만, 기대 반의 심정으로 홍콩으로 향했다. 익숙했던 얼굴이 다시 보이기를,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아트 페어의 도시로서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과 장점을 지닌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이 나를 끌어왔나 보다. 이미 오래 전 얘기지만, 사실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 허브’이자 ‘쇼핑의 도시’로 알려진 홍콩에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다(물론 트램을 타고 올라가면 홍콩섬과 구룡반도의 야경이 한눈에 담기는 해발 396m의 빅토리아 피크에는 경탄을 금치 못했지만). 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오른 발딩 숲 사이 좁다란 골목길 사이로 에스컬레이터가 뻗어 있는 생명력 강한 이 도시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다문화적 에너지가 흥미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주변 계기는 아트 바젤 홍콩이었다. 아트 페어의 부대 행사가 전개되는 여러 장소를 섭렵하다 보면 학습과 발견을 동시에 하게 되는 식이었다. 현대미술 장터를 넘어 어느덧 글로벌 축제로 자리 잡은 행사로 도시 탐험의 경계를 확장하게 된 셈이다.

●●● 결론적으로, 아트 바젤 홍콩에는 많은 ‘객’이 돌아왔다. 버틴 이들도 있고 떠난 이들도 있지만, 마치 상춘객처럼 봄에 이 도시를 다시 찾는 다국적 아트 파퓰의 물결을 보며 적어도 현대미술의 상업적 플랫폼 도시로서는 브랜드 가치를 아직 잃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혼혈아인 자유무역항이자 무관세 지역으로 다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홍콩의 특징점은 그만큼 강력하다. 게다가 그 패권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비단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꽤 여러 층위에서 이뤄지고 있음이 여실히 느껴졌다. 각국 문화·예술계, 패션계 인사가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여럿 개시되고, 글로벌 경매업체들이 제정비를 거쳐 새 사업장을 내세우며, 크고 작은 브랜드와 갤러리가 저마다 다른 결의 변화를 추진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철주야 ‘열일’하는 개개인의 열정이 이 도시를 잠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아티스트 그룹 팀랩(teamLab)의 전시가 눈부신 야경을 뱃하면서 진행 중인 타마 파크에서 고운 색으로 빛나는 달걀 모양의 커다란 오브제 사이에서 즐겁게 거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중국에도 영국에도 속하지 않은 특수한 정체성을 띠는 도시 홍콩이, 위기 의식을 갖고 부디 그 매력을 이어가기를 더 바라게 된다.



1 홍콩 타마르 공원(Tamar Park)에서 빅토리아 항구(Victoria Harbour)까지 밤의 경관을 수놓는 아티스트 그룹 팀랩(teamLab)의 전시 〈Continuous〉 설치 풍경. 고운 색깔로 빛나는 달걀 모양의 설치물들이 배경음악과 더불어 항구의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2 구룡반도의 시주루 문화 지구(WKOD)에 속한 문화 센터 중 하나인 시취(Xiqu) 센터에서 기초 연설과 더불어 첫 세션이 열린 ‘Hong Kong International Cultural Summit(HKICS) 2024’. 전 세계 주요 미술관 관장과 큐레이터 등 관계자가 모여 다양한 강연과 토론을 열었다. 3 침사추이에 자리한 5성급 호텔 로즈우드(Rosewood)의 레스토랑 입구로 가는 공간에 놓인 조각 작품. 네덜란드 작가 프래딕 몰렌스홀(Frederik Molenschot)의 작품 ‘S TATI CAI’(2024). 4 아트 바젤 홍콩 주간에 열린 이브리칸 현대미술 페어 ‘1~54’의 기획전 〈Coalescent Lights〉 모습. 뉴욕, 런던, 미네아폴리스 등에서 열리는 이 페어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전시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크리스티 홍콩에서 닷새(3월 26~30일) 동안 진행됐다. 5 홍콩 현대미술 그룹이 젊은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2명의 지역(중국) 작가와 합작해 해바라기 프린트 산책길에서 선보인 프로젝트 ‘Realising Central Cityscapes’. ※ 1~5 Photo by 고성연



THE FAIR

장성한 글로벌 아트 페어는 흔히 그렇듯, 공식 개최일 전에 피터가 시작되고, 행사가 끝나고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아시아 현대미술계 최고의 명성과 최대 몸집을 자랑하는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도 그러하다. 올해는 구룡반도의 침사추이 빅토리아 독사이드에서 열린 자선 경매(3월 21일)를 비롯해 국제공항 근처에 자리한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는 글로벌 패션 행사인 ‘콤플렉스콘’이 아시아 최초로 열렸고(3월 22~24일), 같은 주말에도 도시 곳곳의 ‘아트 스페이스’에서 각종 토크 프로그램과 갤러리 투어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3월 26일과 27일 VIP 프리뷰를 거쳐 아트 바젤 홍콩 2024년이 개관했다.

#아트 바젤 홍콩(Art Base Hong Kong)

2024 이모저모

●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아트 바젤 홍콩 2024년 에디션. 3월 26일과 27일 양일 VIP 프리뷰로 시작해 사용 기간(28~30일)의 공식 일정을 잡은 이 글로벌 현대미술 페어에는 40개 국가와 지역의 2백42개 갤러리가 참가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규모로 팬데믹 전으로의 회복을 알린 것이다. 이 기간 주 전시장인 홍콩 컨벤션 센터(HKCEC)를 찾은 관람객 수는 7만5천여 명. 이는 8만 명을 훌쩍 넘긴 지난해에 비해 외려 줄어든 수치다(1만 명 이상 감소했다). 전반적인 경기가 하강 국면인 탓에 미술 시장도 그 화살을 피해 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홍콩을 둘러싼 사회 정치적 분위기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 그래도 글로벌 아트 신을 보면 대다수 아트 페어는 규모를 줄이는 데 반해 아트 바젤 홍콩은 예년 수준을 거의 되찾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고시안, 하우저웬스, 데이비드 즈위너, 화이트 큐브, 리만머핀, 페로탕 등 내로라하는 갤러리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프랑스의 갤러리 르 롱 & 코(Galerie Lelong & Co.), 이탈리아의 갤러리 마조레 G.A.M.(Galleria d'Arte Maggiore G.A.M.), 멕시코의 쿠리만주토(Kurimanzutto), 인도의 익스페리멘터(Experimenter) 등 주목할 만한 68개의 갤러리가 공백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지에서 25개의 갤러리가 최초로 참가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팬데믹 방역 규제가 늦게 풀린 여파로 주로 아시아 방면 객이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관람객 풍경에 있어서도 훨씬 더 ‘다국성’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다.

●●● 다만 ‘불황’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 그렇듯 갤러리들의 실적 희비 교차도 더 첨예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6 아트 바젤 홍콩의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인카운터스(Encounters) 섹터에서 선보인 쿠바 작가 요안 카포테(Yoan Capote)의 작품. 작은 낚시용 후크 수천 개로 일몰이는 바다의 물결을 만들었다. 7 갤러리의 메인 부스에서 주제를 다루는 캐비닛(Cabinet) 섹터에는 역대 최대인 33개 갤러리가 ‘솔로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는데, 조현화랑에서는 지난해 작고한 박서보의 회화 시리즈를 선보였다. 8 인카운터스에서 선보인 양해규 작가의 프로젝트 ‘우발적 서식지’(Contingent Spheres(偶然之界))를 구성하는 중간 유형 - 서식 밧은 다산의 오발이 유가(2020). Courtesy of the artist: Kukje Gallery, Seoul / Busan: Kurimanzutto, Mexico City / New York: Galerie Chantal Crousel, Paris 사인 Cheok Hong (MIMA 현대미술관 2020: 양해규 - Q2 & H20) 전시 모습.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2020. 이미 지제로 국채환(2019) 9 아트 바젤 홍콩이 열린 홍콩 컨벤션 센터(HKCEC)에 별도로 마련된 UBS 라운지 풍경. UBS는 아트 바젤의 글로벌 파트너다. 10 아트 바젤 홍콩의 메인 행사장인 ‘갤러리즈(Galleries)’ 섹터에서 선보인 장경주 작가의 달동네 회화 두 점은 바로 안면빛도(학교). 11 아트 바젤 홍콩 2024 행사장에는 열대바다 어티스트(자 영화 제작자 리젠화)가 큐레이팅한 필름 프로그램이 꾸려졌다. 그중에는 액셀 페르포르트 갤러리(Axel Vervoordt Gallery)에서 선보인 한국 작가 강수자의 실의 제적(Thread Routes) - 45(2014)도 포함됐다. 12 아트 바젤 행사장에 꾸민 BMW 라운지 풍경. 알렉스 이브라켈(Alex Israel)의 작품 REMEMBER를 선보였다. ※ 6, 7, 9~12 Photo by 고성연

다. 스위스 계통의 메가 갤러리 하우저웬스가 빌럼 더 코닝의 1986년 작 ‘Untitled III’(약 1백20억 원)와 필립 거스틴의 1978년 작 유화인 ‘The Desire’(약 1백15억원)를 판매하는 등 대작 판매 소식도 알려졌지만 확실치 ‘큰손’ 고객들의 씀씀이가 돋보이기보다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당연히 갤러리들이 경쟁적으로 실적 알리기에 나서던 풍경이 보이지 않았다. 올해 한국 갤러리의 경우 참가 목록 자체는 대동소이했지만, 상당수가 1층에 자리하면서 주목받고 실적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후기가 나온다. 페어에 참가한 한국 갤러리는 우선 메인 행사장인 ‘갤러리즈(Galleries)’ 섹터에는 국제갤러리를 비롯해 PKM 갤러리, 학교재, 조현화랑, 갤러리 바론, 아라리오, 리안, 우순 등이 포함되었다. 갤러리의 메인 부스 내에서 주제 전시를 다루는 캐비닛 섹터에는 역대 최대인 33개 갤러리가 ‘솔로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는데, 한국 작가 부스가 꽤 인상적이었다. 조현화랑은 지난해 작고한 박서보의 회화 시리즈를 선보였고, 티나킴 갤러리는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강석호 작가를 조명했다. 신진, 유망 작가의 개인전에 집중하는 ‘디스커버리즈(Discoveries)’ 섹터에 참가한 한국 작가 김경태(후속 갤러리)도 눈에 띄었다. 주로 작은 사물을 여러 초점으로 맞춰 촬영한 뒤 합성해 의도한 모든 것이 선명한 초점을 띠는 이미지로 완성하는 기술인 ‘포커스 스택킹(focus stacking)’ 기법을 사용한 사진 작업 ‘Optical Sequence’를 선보였는데, 시선을 잡아끄는 대형 작업 옆에 실제 렌즈(육각 대변의 치수가 1.5mm부터 10mm)도 전시해 대조해보는 재미를 더했다.

●●●● 아트 바젤 홍콩의 ‘인카운터스(Encounters)’ 섹터는 늘 인기를 누려온 플랫폼이다. 갤러리 부스 사이에 대형 설치 작품을 소개하는 플랫폼이라 사각형 큐브 사이에서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해준다. 시드니 비영리 전시 공간 아트스페이스 시드니(Artspace Sydney)의 디렉터로서 인카운터스를 오랫동안 이끌어온 알렉시 글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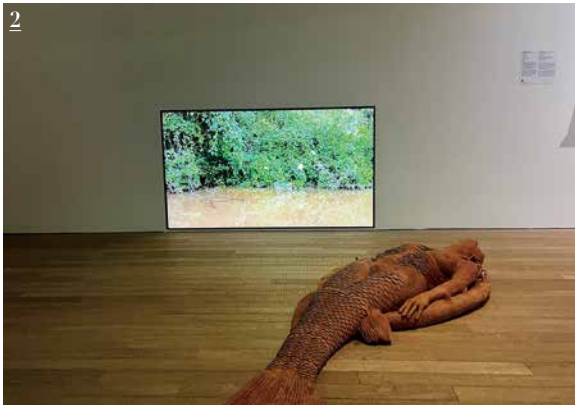
칸터(Alexie Glass-Cantor)는 올해 16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올해도 쿠바의 저명한 작가 요안 카포테의 ‘푸른 파도’를 연상시키며 공간을 가로지르는 작품이라든지, 호주 원주민 작가 나미나루 메이무루-하이트의 설치 작품 ‘라라킵 포레스트(Larrakitj Forest)’ 등의 프로젝트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일본 작가가 3명이었다). 그 중에는 한국 현대미술계를 이끄는 작가인 양해규의 작품 ‘우발적 서식지(Contingent Spheres(偶然之界))(2020, 2022)도 포함됐는데(국제갤러리, 쿠리만주토, 상탈 크루젤 갤러리의 협업), 마닐라 현지 장인들과 협업해 탄생시킨 한 쌍의 등신대 라탄 조각과 백색 나무기를 나타낸다는 대형 조각의 어우러짐이 묘한 오리를 자아냈다. 각각 라틴과 침몰 공예라는 수공예적인 직조 방식을 공동 제작 언어로 공유하면서 ‘우발적 서식지’라는 하나의 장면을 연출한 이 프로젝트는 개별적인 지역의 문화 환경에 기반하면서도 하나의 조각군을 이루며 ‘자연 문화(natureculture)’라는 하이브리드적 개념을 구현하려 했다고. 글 고성연



‘문화 예술의 달’을 맞이한 홍콩의 봄(Hong Kong Arts Month) 2024

Highlights in the City

지난 3월 말 홍콩의 봄은 후끈 달아올랐다. 대개 4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만 예년에 비해 기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올라갔던 올봄, 날씨만큼이나 타지에서 찾아온 방문객을 맞이하는 도시의 열기가 강렬해진 데는 글로벌 현대미술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을 필두로 한 아트 위크, 더 넓게는 이 주간을 전후로 한 달 가까이 펼쳐진 문화 예술의 달(Hong Kong Arts Month)의 역할이 컸다. 특히 올해는 아트 바젤 홍콩 행사가 팬데믹 이전 규모를 회복한 상태로 외부인에게 다시 문을 활짝 연 찾ate라 관람객 스펙트럼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다양해진 다국적 면모가 반갑게 느껴졌다. 예전만큼의 오색찬란한 활기는 보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며 꿈틀대는 도시의 몸짓이 어쩐지 인간의 삶을 닮은 듯, 열정과 애수가 뒤섞인 홍콩의 봄날은 묘한 에너지로 다가왔다. 아트 바젤 홍콩을 전후로 도시를 수놓고 있는 장의 전시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1 홍콩섬 중상가인 센트럴(할리우드 로드)에 자리한 복합 문화 단지 타이쿤(Tai Kwun)에 있는 현대미술관 JC 캔렘퍼리. 2 생태 환경과 여성을 주제로 한 기획전 〈Green Snake: women-centred ecologies〉 설치 모습. 2023년 12월 20일부터 지난 4월 1일까지 열렸다. 유럽 열강들의 식민 지배로 파괴된 자연과 남미 원주민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포착는 아르헨티나 작가 아드리아나 바스토스(Adriana Bustos)의 작업 〈Pejerreina〉(2023). 〈Green Snake: women-centred ecologies〉에서 선보였다. 3 JC 캔렘퍼리에서 지난 4월 14일까지 특별 상영전 〈Who is Who〉를 가졌던 미국 작가 사라 모리스(Sarah Morris)의 영상 작업 『TTC』의 스크린샷. 세계 유수 도시를 배경으로 작업을 해온 작가는 2023년 봄 홍콩에서의 촬영을 바탕으로 작품을 선보였는데, 앞서 M+ 피사드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4 M+와 프랑스 아트 축제 르 프렌치 메이(Le French May)의 공동 전시 〈누아르 & 블랑: 사진 이야기〉 포스터가 인쇄된 카타린 펠생,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의 영상 높은 사진 소장품 컬렉션에서 선별한 2백50점 이상의 작품이 포함된 이 사진전은 사진 매체에 한정된 M+ 최초의 전시로 오는 7월 1일까지 계속된다. 5 유자엽, 그 이상(+)을 풀어내고 살리는 열망을 담은 이들을 위한 M+는 동시에 최고의 건축가 듀오가 이끄는 HdM과 협업해 매이트룸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21년 늦가을 드디어 대중 앞에 선보였다. M+가 들어선 구룡반도의 명도 매립지를 문화 예술촌인 시추롱 문화 지구(WKCD)로 탈바꿈하는 정부 차원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6 중국 현대미술 컬렉터로 M+에 대다수 작품을 기증한 것으로도 유명한 스위스 출신 미술리 지그(Jill Sig)의 소장품 전시 풍경. 아웨이웨이(Ai Weiwei)의 작업보이와 나무를 재료로 한 〈Ton of Tea〉(2006)가 가운데 놓여 있다. 7 동시대 작가들의 렌즈를 통해 풍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담아낸 M+ 소장품 기획전 〈산수화: 메아리와 신호(Shanshui: Echoes and Signals)〉 설치 모습. ※ 1~7 Photo by 고성연

#블록버스터 전시가 그리워지는 대형 미술관들의 봄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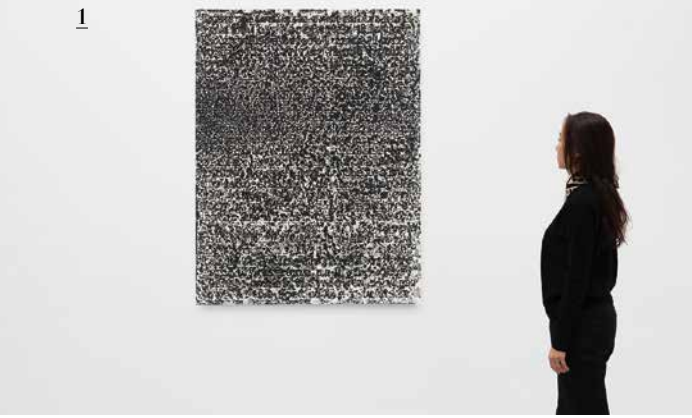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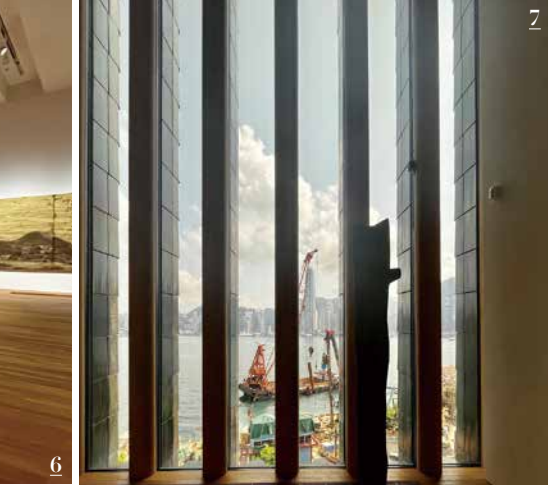
● 홍콩은 대다수의 방문객에게 숙주의 도시다. 세인의 관심을 받으며 오랜 세월을 걸쳐 진행되다가 팬데믹 기간에 드디어 공개된 홍콩의 미술관 M+를 설계한 HdM의 건축가 피에르 드 뮈롱(Pierre de Meuron)이 표현했듯 말이다. 사실 필자를 비롯해 타지의 여행객들이 홍콩에 가면 구룡반도와 홍콩섬에 들르는 일정이 일반적이라 이런 이미지는 당연하게 외팔을 짓는다. 하지만 사실 홍콩은 이 두 지역 말고도 산계, 그리고 란타우섬을 비롯해 2백63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이 많고 평지가 적다. 전체 면적의 60%가량이 산이라고 하니, 홍콩에서 오래 살았던 국외 거주자들이 조금만 벗어나면 원전지 다른 풍경을 누릴 수 있다며 이구동성 강조하는 초록의 미감이 이해된다. 도시 여행자에게 익숙한 홍콩섬 북부와 구룡반도는 원래 협소한 지역이었는데, 1세기 넘게 전개한 건축 사업으로 그나마 넓어진 것이다. M+가 들어선 구룡반도의 명도 매립지를 문화 예술촌인 시추롱 문화 지구(WKCD)로 탈바꿈하는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였다. 그중 캔렘퍼리 미술관인 M+는 유자엽, 그 이상(+)을 풀어내고 살리는 열망을 담은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포부에 걸맞게 동시에 가장 각광받는 ‘스타아키텍트(starchitect)’ 브랜드인 HdM과 협업해 한화로 1조원을 훌쩍 넘기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2021년 늦가을에 대중 앞에 선보인 M+는 불과 1년 반 정도 만에 3백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 수를 돌파할 만큼 지금 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지난해 봄 팬데믹 빙정이 완화되면서 해외 방문자들에게도 모습을 드러냈다.

라했다. 건물 자체는 18층이지만 전시 공간은 3개 층에 나누어 있는데, 전시 공간 규모만 17,000㎡(약 5천1백 평)에 이른다. 내부는 육중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세련미너미를 누리며 효율을 기다들을 만한 공간이 자리하며, 외부로 나가 싶더 같은 공공 공간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건나편 홍콩섬 전 경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M+의 루프 가든이 탁 트인 해방감을 선사한다. 지난해 봄에는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예술가 구사마 야요이(Yayoi Kusama)의 역대급 규모 회고전이 열려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올봄에는 걸출한 중국 현대미술 컬렉터인 스위스 출신 미술리 지그(Jill Sig)의 소장품 전시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었고, 20세기 중국 패션 아이콘 미담 송을 기리는 특별전 등이 가리고 있었다. M+는 33개 전시실(gallery)을 둔 만큼 발품을 팔 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콘텐츠 구성이 아쉬웠다(특히 지난해 전시를 본 경우라면 더욱 그렇 것이다). 〈산수화: 메아리와 신호(Shanshui: Echoes and Signals)〉전만 빼면 사진 시리즈가 아닌 회화 작품만 10여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다. M+는 33개 전시실(gallery)을 둔 만큼 발품을 팔 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콘텐츠 구성이 아쉬웠다(특히 지난해 전시를 본 경우라면 더욱 그렇 것이다). 〈산수화: 메아리와 신호(Shanshui: Echoes and Signals)〉전만 빼면 사진 시리즈가 아닌 회화 작품만 10여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다.

●●● 개관직으로 예정하는 홍콩섬 센트럴 지구(할리우드 로드)의 타이쿤(Tai Kwun). 중앙경찰서, 빅토리아 감옥 등 16개 옛 정부 건물을 1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 복합 문화 단지로 재탄생시킨 장기 재생 프로젝트의 결과를 (2018년 5월 개관인)이 매력적인 복합 단지에는 HdM의 또 다른 설계 작품인 JC 캔렘퍼리가 있는데, 수준 높은 동시대 미술을 접할 수 있는 미술관이다. 올봄 아트 바젤 홍콩 주진에는 생태 환경과 여성을 주제로 한 〈Green Snake: women-centred ecologies〉라는 기획전, 그리고 도시를 소재로 한 영상

과 과학적 추상 작업으로 알려진 미국 작가 사라 모리스(Sarah Morris)의 소규모지만 인상적인 전시가 펼쳐지고 있었다. 도시의 여러 건축물과 산업적인 풍경을 자연화와 관련 구조로 파악하는 작가의 홍콩 시리즈는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하는 예술 산책에 지친 눈도 불끈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 물류 센터의 콘베이어 벨트, 홍콩 사람들에게 익숙한 두유 음료 박을 만드는 공장의 기계 조차 심미적으로 아작하게 담아낸 영상미도 그렇지만 이 도시를 지각 없이 묵묵하게, 하지만 예리하게 응시하는 시선이 좋았다. 그렇지만 문득 다음 기획 전으로 예정된 전시 타이틀을 보니, 글로벌 아트 주진에는 이 대형 전시(현대미술 가장 브루스 나우먼의 대대적인 사비) 전시가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센트럴 지역과 애버딘의 대조적인 예술 풍경

● 성공적인 아트 페어는 때로 현대미술 장터의 수준을 넘어 문화 예술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콘텐츠를 끌어오는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주로 금융과 소망의 도시로 여겨졌던 홍콩에는 아트 바젤 홍콩의 여파가 된 홍콩 아트 페어(Hong Kong International Art Fair)가 2008년 설립되면서 미술 시장을 둘러싼 기운이 커졌고, 그 무렵 가요시안, 화이트 큐브, 라머틴, 페로탕 같은 스타 갤러리의 아시아 분점이 속속 입성했다. 그리고 2013년 아트 바젤을 운영하는 스위스 MCH 그룹이 홍콩 아트 페어를 인수해 아트 바젤 홍콩으로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마케팅 전쟁

● 아트 바젤 홍콩이 열리는 아트 주간, 길게는 한 달 내내 도시 곳곳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행사는 일일이 세기는 힘들지만 1백 개도 훌쩍 넘는다. 하비 프린트의 천하를 무대로 하는 워싱 아트 페어 아트 센트럴(Art Central)이 별도로 열리기도 하고, 깊은 녹음 속 히트가 청조적 영감을 절로 북돋워주는 타이로 공원을 비롯해 아이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다국적인 렉과 자본의 조합으로 자마다 매력을 뽐내는 여러 복합 단지에서 펼쳐지는 알찬 문화 예술 프로그램은 깨알같이 많다. 캐세이퍼미픽 항공을 소유한 홍콩 스와이어 그룹(Swire Properties)의 경우에는 아트 바젤 홍콩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형 설치 전시인 ‘엔카운터스(Encounters)’의 장의 전시를 후원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호주 작가 대니얼 보이드(Daniel Boyd)의 대형 설치 작품이 퍼미픽 플레이스(Pacific Place)에서 선보였다. 스와이어 그룹은 또 아트 주간에 맞춰 해마다 복합 비즈니스 빌딩인 타이로 플레이스의 아트트리(ArtisTree)에서 전시를 여는데, 올해는 포르투갈 출신의 예술가 조아나 바스 콘셀루스(Joana Vasconcelos)의 재발발한 〈Enchanted Forest〉전도 이어졌다. 타이로 플레이스의 광장에서선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영국의 조각가 장 앤터니 고리(Antony Gormley)의 『SH-IF』가 전시되기도 했다.

●● 럭셔리 브랜드나 호텔에서조차 자마다 아트를 키워드로 삼은 콘셉트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룡반도 침사추이의 하비 프린트 인근에는 내로라하는 럭셔리 호텔인 페난슬라와 로즈우드가 있는데, 이 두 호텔은 아트 바젤 홍콩을 후원하고 있고도 하비인 자체적으로도 아트 프로그램을 꾸린



가슴-네 해면서 편이 커졌다. 워낙 밀도 높은 평당여유와 센트럴이나 원더아에 위치한 갤러리들은 대개 고층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 홍콩 중상가인 센트럴에 있는 페디 빌딩(가요시안 홍콩), 중국농업은행화이트 큐브 홍콩) 등은 현대미술 컬렉터나 문화 예술 애호가들이 들르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2019년 아트 주간에는 센트럴 지구에 아트 특화 빌딩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운 H 퀸즈(H Queen's)가 화려했는데, 데이비드 즈워너, 화이트스트 갤러리, 탕 칸렘퍼리 등이 입주했기 때문이다. 메가 갤러리도 큰 부침이 없어 보이는 탄탄한 실질을 자랑하는 하우저클러스는 올 초 자선상에 위치한 새로운 갤러리 공간을 열었는데, 이 역시 알지 않은 센트럴 지구아기는 하비(퀸즈 로드 센트럴 8).

●● 어느 도시나 그렇지만 판이 커지면 이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명감 비싸고 건물과 인구가 밀집된 홍콩섬 중상가에서 벗어나거나 제2의 공간을 두는 갤러리가 꽤 있었지만 이러한 경향은 더 짙어지고 있다. 예컨대 이제 아트 지구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홍콩섬 남쪽의 양측향에는 벨기에 갤러리인 액셀 페르포르트(Axel Vervoort), 일본 갤러리 다카 이시(Taka Ishi), 벤 브라운(Ben Brown) 등이 있다. 홍콩 갤러리인 empty 갤러리(Empty Gallery)와 카랑 말랭그(Kiang Malingue)는 이에 홍콩섬 남서쪽의 조용한 어촌 분위기가 느껴지는 애버딘 지역에 자리 잡았다. 역시 고층 건물 안에 있는 하비인 화이트 큐브가 아닌 온통 이두운 벽으로 둘러싸인 ‘블랙 큐브’ 공간이 인상적인 empty 갤러리는 그대도 손쉽게 감상해 관람했지만, 퍼자판도 눈에 띄지 않는 공간 건물 안에 입주한 카랑 말랭그의 전시 공간은 길가에서해 매가 간신히 찾았는데, 약자로 꾸민 인스타그램 감성의 인타리아가아라 전파 전업 현장 속에서 오마카스를 발견한 듯 신선한 느낌을 선사했다. 미침 류 샤오후이(Liu Xiaohui)라는 작가의 전시 〈Flowers of Hong Kong〉이 열리고 있었는데, 작은 꽃 그림 일층도 내보 보이는 상공경을 바라보며 갤러리에서 주는 음료를 즐겨보느라 어쩐지 작품을 천천히 들여다볼 여유가 슬며시 생겨났다. 불꽃같이 자랄라하는 전시 산책의 뒷에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일까.



1 복합 비즈니스 빌딩인 타이로 플레이스에 있는 아트트리(ArtisTree)에서 진행 중인 포르투갈 출신의 예술가 조아나 바스콘셀루스(Joana Vasconcelos) 전시 〈Enchanted Forest〉 설치 풍경. 호텔, 유흥, 건설 등의 다양한 사업 분야를 거느린 스와이어 그룹(Swir Properties)에서 후원하는 아트 프로젝트다. 이와 더불어 공공 미술 컬렉션으로 영국의 조각가 장 앤터니 고리(Antony Gormley)의 『SH-IF』를 타이로 플레이스의 야외 광장에 선보이기도 했다. 이미지 제공: Swire Properties 2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센트럴에 있는 쇼펠 퍼미픽 플레이스(Pacific Place)에 전시된 호주 작가 대니얼 보이드(Daniel Boyd)의 장소 특장적 설치 작업 〈Doan〉, 역시 스와이어 그룹의 아트 프로젝트로 꾸러졌다. 3, 4 글로벌 경제 업체 크리스티(Christie's)는 현지 부동산업체와 손잡고 수백여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무대로 중국 작가 류에(Liu Ye) 기획전을 열었다(3월 22일부터 27일까지). 홍콩 북동 마드레벨 지역의 고급 아파트 하이 피크(High Peak)에서 진행한 ‘논-세일(non-sale)’ 전시였는데, 홍보를 위해 이름다운 거꾸러진 갖춘 이 아파트는 매물이었다. ※ 2~4 Photo by 고성연

Mastery of Time

세계의 모든 시간을 누비는 비즈니스맨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줄 퍼페추얼 캘린더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피게 코드 11.59 퍼페추얼 캘린더 지름 41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별이 빛나는 하늘을 연상시키는 블루 아벤추린 다이얼이 돋보인다. 주, 요일, 날짜, 천문학적 달, 월, 윤년, 시 및 분을 표시하는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을 갖췄다.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라버 5134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53-1351

비세몬 콘스탄틴 페트리오니 울트라-씬 퍼페추얼 캘린더 놀란도록 얇은 8.9mm 두께의 퍼페추얼 캘린더 워치. 두께 4.05mm에 불과한 칼라버 1120 OP를 탑재했기에 가능했다. 18K 5N 골드 소재 41mm 케이스에 사틴 마감 처리한 블루 컬러 다이얼이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며, 6시 방향에 위치한 문페이즈와 브랜드 마크가 매력을 더한다. 193천1백만원. 문의 1877-4306

IWC 빅 파인렛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달진 오8비 데자르 에디션 인도적 크기를 자랑하는 빅 파인렛 워치에 퍼페추얼 캘린더를 더해 완벽한 기동성을 자랑한다. 지름 46.5mm 샌드 컬러 세라믹 케이스는 고급스러움을 선사하며, 절제된 다크 브라운 다이얼과 텍스처된 인데이 처리한 샌드 컬러 러버 스트랩이 말파트리 감성을 부여한다. 자체 제작 82615 칼라버로 구동한다. 5천9백70만원. 문의 1877-4315

에르메스 워치 슬림 데르메스 퍼페추얼 캘린더 지름 39.5mm의 티타늄과 플루티늄 소재 케이스. 에르메스 매뉴팩처 H1950 울트라-씬 무브먼트로 매우 얇고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의 워치. 사틴한 도금 감성을 전달하는 다크 그레이 다이얼에 3시 방향에 위치한 문페이즈의 달을 자개로 완성해 우아한 느낌을 준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예거 르쿨트르 마스터 울트라 씬 퍼페추얼 캘린더 지름 33mm의 핑크 골드 케이스에 브라운 옐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한 감성을 전한다. 얇은 두께에도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을 추가해 놀라운 시계 제작 노하우를 보여준다. 예거 르쿨트르 칼라버 668로 작동한다. 5천9백만원. 문의 1877-4201

파타리 루미노르 퍼페추얼 캘린더 골드워치™ 구리와 백금으로 이뤄진 골드워치™ 소재의 44mm 케이스에 블루 산-브라시드 다이얼을 매치했다. 0.01mm 두께의 아워 마커를 아랑 처리하고 3시 방향에 날짜, 9시 방향에 스톱 세컨즈 및 24시간 인디케이터를 배치했다. P.9010 칼라버를 장착한 오토매틱 기계식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50m 방수 가능하다. 3천9백만원. 문의 1670-1936 에디터 선정

in the Jungle

고귀한 자연에 대한 경의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애니멀 모티프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신비스러운 느낌을 선사하는 스카이 블루 토파즈와 블루 에메랄드 눈길을 사로잡는 자태버그 링 가격 미정 스텔라 밀스터. 문의 02-2231-1592. 다이아몬드와 루비, 핑크 사파이어, 제이드 등 다채로운 소재로 화려하게 장식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씨씨 나크리스 7백34만원 카린. 문의 02-2118-6228. 카네이션과 타이거즈 아이의 조화로 향한 생명력을 전하는 동시에, 매종의 시그니처 비즈 프래임으로 클린을 이루는 곡선을 한층 더 우아하게 표현한 라미에. 팔츠 에뮤레유 클립 1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문의 1877-4128. 총 50여종의 시트린을 세팅한 대범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새 모티브에 총 27개의 71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드 잔 슬람바제 바이 티파니 온 어락 브루치 가격 미정 티파니. 문의 02-6250-8620. 관능적인 벨의 눈에서 영감을 얻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한, 총 6.34캐럿의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세르펜티 세루토리 브레이슬릿 8천9백60만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상쾌하고도 유려한 나비의 실루엣이 돋보이는, 다이아몬드와 자수정, 시트린을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버틀라이 아이거링 가격 미정 다이아나. 문의 02-515-1924. 에디터 선정

이시영 사진 촬영, 김민지



100 years of Masterpieces

인간 기록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브랜드 '몽블랑'의 역작, 마이스터스틱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다. 독일의 장인 정신과 알프스 꼭대기에 오르는 정복자들의 상징성을 담은 걸작의 탄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의 에디션으로 이를 축하한다.

마이스터스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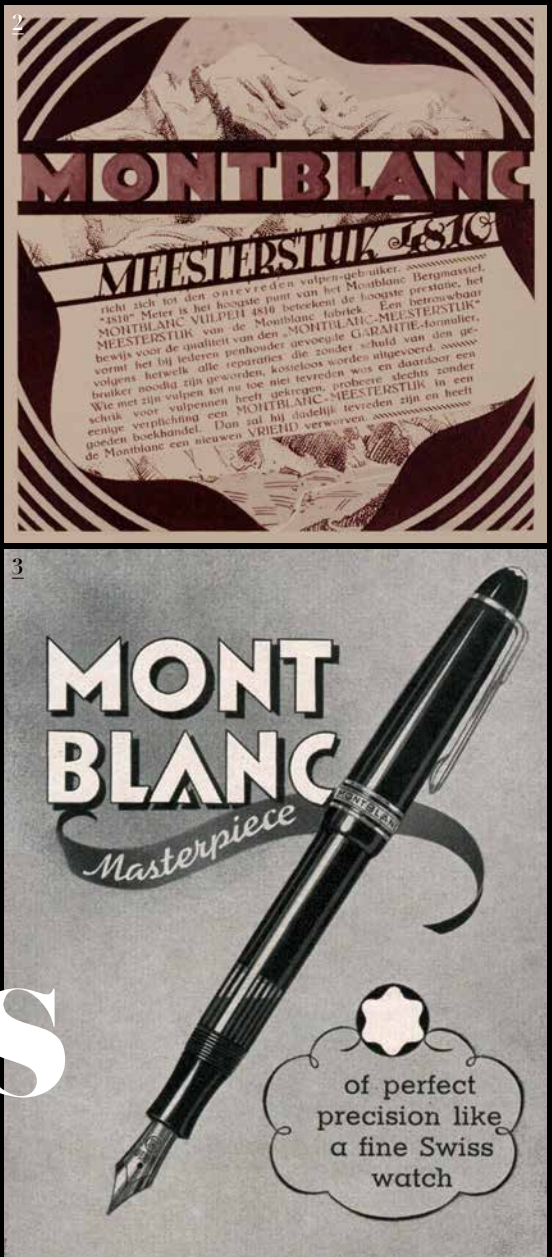
1748년 영국의 요한 얀첸이 금속 펜을 발명한 이후로 금속과 여러 소재를 다듬어 더 좋은 펜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시작됐다. 이후 1906년 친구 사이인 함부르크의 은행가 알프레드 네헤미아스(Alfred Nehemias)와 베를린 태생의 엔지니어 아우구스트 에버스타인(August Eberstein)은 휴가차 방문한 미국에서 놀라운 파운틴 펜을 발견한다. 이 펜의 편리함에 매료된 그들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베를린 지역에 '짐플리치시무스 만년필(Simplicissimus Fullhalter)'이라는 작은 만년필 제조 공방을 열었다. 이 네 입은 영어의 '심플리스트(simplest)'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잉크통이 펜에 내장되어 있는 디자인의 단순함에서 착안해 공방 이름에 사용했다. 이후 1908년 함부르크의 사업가 요하네스 포스(Johannes Voss)가 합류하며 '심플로 필

러 펜 컴파니'라는 사명으로 함부르크에 본사를 창립하고 회사 등록을 완료했다. 초기엔 주문을 받아 납품하며 만년필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지만, 그들의 최종 목표는 '고품격 골드 만년필 제작'이었다. 독일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제작한 품질 높은 만년필만이 미국 중심의 만년필 시장에서 유일한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년 후 1909년엔 작가 스타링담의 책에서 따온 '루즈 & 느와(Rouge & Noir)'라는 이름의 잉크가 새지 않는 만년필을 개발해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했다. 사람들이 만년필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찾아내 독일 장인의 손끝으로 해결한 것이다. 그 후 20여 년이 흐른 1924년, '걸작이란 의미의 마이스터스틱(Meisterstück)'을 탄생시킨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일부 고객이 '일요일용', 즉 매일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훌륭한 경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필기구를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다. 우연히도 몽블랑에서 수년간 사보아-페어(savoir-faire, 노하우)를 연마해온 장인들은 퍼스널 프로젝트로 자신들을 위한 유일무이한 필기구를 제작하고 있었다. 이 필기구는 뛰어난 장인 정신을 보여주었으므로 독일어로 '걸작(masterpiece)'이라는 의미의 마이스터스틱(Meisterstück)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처럼 운명적인 우연으로 최초의 마이스터스틱 컬렉션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는 빠르게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갔다.

장인 정신으로 지니온 시간

최초의 마이스터스틱 필기구 제품군은 1924년에 심플로 필 페더게젤사프트(Simplo Füllfedergesellschaft), 후에 몽블랑-심플로(Montblanc-Simplo)로 변경에서 개발했다. 처음부터 몽블랑 산의 높이를 의미하는 숫자, '4810'은

마이스터스틱과 본질적으로 결부되어왔다. 네 자리 숫자는 패기장에 뚜렷하게 표시되었고, 캡에 새겨졌으며 1930년부터는 닙(펜촉)에도 각인되었다. 오늘날 또 다른 몽블랑의 특색이라고 여겨지는 골드 컬러 역시 마이스터스틱과 함께 선보였다. 1928년, 단순한 장식적 요소로만이 아니라 캡을 강화하고 갈라질 위험을 줄여주는 2개의 골드 링을 처음으로 캡에 도입한 것이다. 1934년과 1935년, '몽블랑 심플로 GmbH(Montblanc Simplo GmbH)'로 사명을 바꾸면서 몽블랑 만년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여러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그중 하나가 마이스터스틱 라인으로 출시된 첫 신규 디자인이다. 원통형 세이프, 상급 보드 캡 링, 대담한 클립 디자인과 튼튼 닙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1920년대에 출시된 마이스터스틱 모델과 구별되는 발전된 디자인으로 진화했다. 1937년에는 캡 부분에 3개의 골드 링이 있는 첫 번째 마이스터스틱이 출시되었다. 시선을 사로잡는 이 디테일은 초창기에 회사 창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 빌헬름 잠보어(Wilhelm Dziambor), 크리스티안 라우센(Christian Lausen), 클라우스 요하네스 포스(Claus Johannes Voss)를 상징한다. 전 세계적으로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는 클래식한 가치의 귀환과 동시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 재건과 혁신의 시기였다. 마이스터스틱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으며, 3개의 링과 펜촉 등 유명한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유선형의 룩을 선보였다. 이렇게 완성된 아이코닉한 만년필이 그 유명한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골드 149 만년필이다. 149의 탄생과 함께 1952년에는 진정한 퓨처 클래식인 주목반았고, 첫 번째 두에 모델과 더 부드러운 '윙 닙(Wing Nib)' 등 새로운 제품이 이 시대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1960년대부터 몽블랑은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난 새로운 대량생산 붐에 대응해 보다 효율적인 기술을 수용하면서 생산 방식을 현대적인 기준과 소재로 계속 발전시켰다. 러니에 60(Linie 60) 모델은 사출성형 레진으로 제작했으며, 모든 제품군에 걸쳐 유사한 구성으로 제작했다. 새로운 마이스터스틱 제품군은 이제 매끄럽고 모던한 '제트 시대' 미학을 특징으로 하지만, 마이스터스틱 149만큼은 독보적인 '시가(cigar)' 형태의 디자인을 변함없이 유지했다.

1970년대 초, 몽블랑은 럭셔리에 대한 대중의 신념으로 선구자적인 결정을 한다. 마이스터스틱 149 모델을 넘어 1950년대의 '시가형(cigar-shaped)' 마이스터스틱의 부활을 꾀한 것이다. 좀 더 날렵한 마이스터스틱 디자인은 단계적으로 없애고 클래식하고 매끄러운 모델의 제품군을 늘렸다. 1980년대에는 솔리테어(Solitaire)도 첫선을 보였다. 그 이후로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한 큰 애착과 더불어 마이스터스틱의 실루엣은 다양한 필기 모드에 맞춰 재해석되고 스텔레온 스타일로 개발되었으며, 나아가 유명한 컬래버레이션의 캔버스가 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변형에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로 특유의 핵심 디자인 코드를 유지해왔으며, 필기 문화의 상징으로서 영감을 선사하고 있다.

영감의 원천, 클래식한 디자인

모든 마이스터스틱 필기구는 풍부한 역사를 지닌 작품과 같다. 1924년 최초로 선보인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마이스터스틱은 몽블랑이 제조한 제품 중 가장 대표적인 필기구다. 매종이 제작한 다양한 스타일의 필기구 중 마이스터스틱은 탁월한 장인 정신을 적용해 전통을 보존하며 매일 작업하는 장인과 디자이너의 마음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이스터스틱이 몽블랑의 제품 라인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특유의 디자인 코드는 매종 DNA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DNA를 이어받은 대표적인 제품이 몽블랑 레더 컬렉션이다. 마이스터스틱 출시 이후 가족 제품은 1926년부터 몽블랑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되었지만, 아이코닉한 필기구가 매종의 가족 디자인에 미친 영향은 오늘날까지 뚜렷하게 나타난다. 같은 이름을 붙인 마이스터스틱 컬렉션의 눈부신 블랙 레더는 마이스터스틱의 프레스스 레진이 지닌 시각적 영향력을 반영하기 위해 몽블랑 아티스틱 디렉터 마르코 토마세타(Marco Tomasetta)가 선택한 것이다. 한편 만년필의 닙 세이프는 지퍼 손잡이와 핸들 또는 스트랩이 백과 연결되는 부분의 레더 디테일링 등 많은 레더 제품 디자인에 영감을 주었다. 마이스터스틱 컬렉션의 디자인 목표는 시대를 초월해 럭셔리 상의 디자인 된 몽블랑 필기구와 같은 수준에 다가서는 것이었다. 만년필에 사용된 닙, 프레스스 레진의 색상과 광택 등 여러 독특한 특징을 매끄럽고 감각적인 스타일로 레더 컬렉션에 반영해,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단순히 디자인만 향상된 것이 아니라 몽블랑의 DNA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

또 한번의 진화,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몽블랑이 마이스터스틱의 기원을 조명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향력을 기념하는 컬렉션을 선보이며 위대한 필기 문화 아이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다. 1924년 전 세계 필기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올 블랙 만년필을 절대적인 장인 정신과 마스터의 스킬로 재탄생시키며 그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1백 년에 걸친 지속적인 수요와 인기를 통해 마이스터스틱은 필기 아이콘으로서 완벽하게 인정받아왔다. 몽블랑은 이 중요



한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을 출시한다.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은 이름과 같이 오랜 세월을 거치는 디자인 속성에서 나아가 한 번도 현실화된 적 없는 몽블랑 아카이브의 오리지널 콘셉트를 재해석해 강조했다. 마이스터스틱의 세이프는 최초로 지금까지 심플한 블랙 세이프 펜의 모습에 다양한 시대의 영향을 반영하며 진화해왔다. 그 과정에서 50여 년 전 확고해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몇 가지 독특한 디자인 속성을 갖추게 되었다. 튼튼 골드 닙에 각인된, 몽블랑산의 높이를 미터로 표시한 숫자 '4810'과 1920년대 처음 선보인 대담한 클립 디자인, 1940~1950년대에 도입된 간결한 시가 세이프와 3개의 골드 링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에디션에는 새로운 아이콘으로서의 독특한 디자인 디테일을 담았다. 각 에디션은 숫자 '100'과 연도 '1924' 및 '2024'가 표시된 특별한 디자인 닙으로 장식되었다. 또 특별한 디자인한 캡 링도 두 가지 중요한 연도로 장식된다. 처음엔 '마이스터스틱'이라는 이름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국제적인 성공이 계속되며 제품명이 상징적인 것이 되면서 원래의 독일어 버전만 유지하게 되었다. 제품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리지널 로고(MEISTERSTÜCK)를 모든 에디션의 캡 앞부분에 새긴다. 클립 드롭이 있는 에디션의 구부러진 클립은 필기구의 한 부분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클립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1920년대의 매우 다양한 클립 버전이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캡의 프레스스 레진은 초기 마이스터스틱 필기구에 장식된 다양한 마블 효과에서 영감받아 오늘날의 진보된 생산 기법으로 의도적으로 도입해온 녹는 잉크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더했다.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의 디자인 영감이 된 오리지널 요소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엠블럼은 각각의 에디션 컬러로 둘러싸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정점에서도 마이스터스틱은 여전히 문화와 창의력, 연결성의 상징으로 여겨질 것이다. 무엇보다 마이스터스틱은 필기의 힘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이번 컬렉션을 통해 몽블랑은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마이스터스틱을 규정하는 특징이 된 디자인 속성을 새로운 시각을 통해 발견하거나 재발견하는 여정을 함께하도록 필기 분야 열성 팬과 몽블랑 필기 문화의 애호가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몽블랑의 필기 문화 디렉터 알렉산드라 엘리아(Alessandra Elia)는 말한다.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프레스스 레진 149는 프레스스 레진 배럴과 플루이드 잉크 효과를 준 캡이 특징이며, 100주년 캡 링과 스페셜 클립을 비롯해 플레티엄 코팅 피팅이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로둠 코팅한 솔리드 Au750 골드 닙은 100주년 디자인으로 장식된다.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프레스스 레진 르그랑은 다크 블루 프레스스 레진 배



1 오리지널 컬렉션과 과거 카탈로그, 2 1924년 광고 그래픽, 3 1950년대 광고 그래픽, 4 1962년 처음 출시한 마이스터스틱 149, 5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프레스스 레진 149, 6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솔리테어 르그랑 에디션, 7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두에 클래식, 8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프레스스 레진 클래식, 9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프레스스 레진 클래식, 10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두에 르그랑, 11 현재의 마이스터스틱 149.

럴과 블루 플루이드 잉크 효과 캡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다. 매미를 장식하는 몽블랑 엠블럼을 프레스스 블루 레진에 장식했으며, 닙은 로둠 코팅한 솔리드 Au585 골드로 제작했다.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프레스스 레진 클래식 에디션은 그린 프레스스 레진 소재로 플루이드 잉크 캡 효과와 우아한 골드 코팅 피팅, 그리고 그린 레진에 둘러싸인 엠블럼이 특징이다. 솔리드 Au585 골드 닙은 독특한 100주년 디자인으로 장식된다.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두에 및 솔리테어 에디션은 광범위한 몽블랑 아카이브의 초기 디자인 연구를 현실로 구현한다. 생선된 적 없는 유니크한 아이덴티티 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은 두 에디션의 캡 패턴을 위한 영감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몽블랑 필기구에서 한 번도 선보인 적이 없었다.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두에 르그랑에서는 빈티지 로고(MEISTERSTÜCK) 각인과 프레스스 블루 레진 배럴로 장식한 블루 레커드 아카이브 패턴을 플레티엄 코팅 탭과 결합했다. 이 에디션은 로둠 코팅된 솔리드 Au750 골드 닙과 캡 톱 부분의 블루 레진에 장식된 몽블랑 엠블럼이 특징이다.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두에 클래식 버전의 디자인에서는 골드 코팅 캡과 그린 레커드 아카이브 패턴이 매미를 이룬다. 프레스스 그린 레진에 몽블랑 엠블럼을 장식했으며, 닙은 솔리드 Au750 골드로 제작했다.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솔리테어 르그랑 에디션은 골드 코팅 디자인과 시그니처 몽블랑 코팅 컬러가 조화를 이룬다. 이번 필기구 컬렉션과 더불어 몽블랑은 에디션의 주요 컬러를 반영해 블루, 그린, 코랄 등 세 가지 컬러의 잉크를 유리병에 담아 선보인다. 이 잉크병은 아카이브 디자인이 그려진 박스에 담겨 있다. 블루 소가죽 노트에는 섬세한 아카이브 패턴을 음각했으며, 만년필 디지털 프린트를 더한 마이스터스틱 100 가죽 노트와 카드 세트, 100주년 디자인 봉투도 이번 컬렉션에서 소개한다. 또 스틸 및 레커 소재의 라운드 커프스 링크 셀렉션, 스릴 빈티지 디자인 클래스 프가 달린 레더 브레이슬릿도 특별한 기념일을 위해 출시된다.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은 2024년 4월부터 전 세계 몽블랑 부티크와 온라인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877-5408, www.montblanc.com에서 **생생한**



Love Rectangle

마드모아젤 샤넬이 디자인한 역사적인 2.55 백에 뿌리를 두고
칼 라거펠트와 버지니 비아르를 거쳐 발전하고 있는 11.12 백은 현대 여성의
아이코닉 백으로 자리 잡았다.

**“가방을 손에 들고 다니다 잃어버리는 데 지쳐서
스트랩을 달아 어깨에 걸쳤다”**

후프나 여러 겹의 페티코트로만 지탱 가능한 극도로 넓고
풍성한 스커트, 가슴을 끌어올려주고 숨 쉬기 힘들 만큼
허리까지 확실히 조여줬던 코르셋, 히프를 강조하기 위한
페플럼 등 20세기 초까지 여성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보디
라인에 맞추기 위해 몸을 혹사시켰다. 완벽한 S 라인을 만
들기 위한 억지스러운 행위였던 것. 이러한 혹사에서 여
성을 해방시켜준 디자이너가 바로 가브리엘 샤넬이다. 그
녀는 현대 여성과 옷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의 불필
요한 요소를 가차 없이 폐기했다. 그리고 1955년, 그녀의
‘해방운동’이 이번에는 여성의 손으로 향했다. 당시 여성들
은 토트백이나 클러치 등 손으로 움켜쥐어야만 하는 백을
들었다. 주머니에 손 넣는 것을 좋아했던 가브리엘 샤넬은
백에 조절 가능한, 마치 주얼리처럼 백을 장식하는 메탈
체인을 달아 어깨에 매는 형태의 2.55 백을 선보였다. 남
과 같아지는 것을 거부했던 독창적인 그녀는 오토 쿠튀르
의상 같은 백을 상상하면서 특유의 대담함을 더해 장갑 소
재로만 사용되던 부드러운 고급 램 스킨 레더를 사용하고,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저지, 라메, 벨벳, 트위트 등 자신
이 좋아하는 소재를 매치해 백을 디자인했다.

“안과 밖이 모두 아름다워야 한다”

샤넬의 백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먼저 완벽한 재단. 바
느질했을 때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들어맞게 하
기 위해서는 숙련된 장인에 의한 꼼꼼하고 정확한 재단이 필
수다. 두 번째는 프왕 드르아 드 쿠투리에(point droit de
couturière) 기법으로 모든 가죽 조각에 퀵팅을 넣고 더블
C 로고를 플랩 안쪽으로 바느질하는 것. 세 번째는 가방에
생동감과 볼륨감을 주는 백인백 기법인데, 가방 몸체와 반
침대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다. 즉 백 하나는 안쪽에 넣고,
또 다른 백이 겹을 감싸게 하는 것. 네 번째는 안과 밖이 같
아야 한다고 생각한 샤넬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피케-르
투르네(piqué-retourné) 기법으로 백을 뒤집는 방법인
데, 현재 이 기법은 샤넬의 레디-투-웨어 아틀리에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안과 밖의 다른 컬러. 이렇게
대조적인 컬러를 사용하면 소지품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고. 마지막은 가죽을 고정해 가방의 구조를 단단하게 잡아
주는 프왕 드 브리드(points de bride)라는 스티치법이다.
1955년 가브리엘 샤넬이 고안한 2.55 백을 1980년대에
칼 라거펠트가 재해석한 것이 11.12인데, 이 백도 예외 없
이 샤넬의 규칙을 따랐다. 조금 다른 점은 직사각형 잠금장
치인 마드모아젤을 단 2.55와 달리 11.12는 CC 잠금장치



를 달았다는 것. 그리고 2.55의 퀵팅보다 좀 더 볼륨감을 살
렸고 레더 리본과 함께 손으로 엮은 체인을 매치했다는 것이
다. 거기에 레디-투-웨어 의상처럼 포켓도 더했는데, 그 수
는 총 7개. 우선 립스틱을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한
케이스 포켓이 있으며, 카드나 콤팩트를 넣을 수 있는 찬을
덧댄 포켓 2개, 그리고 편지나 작은 메모를 넣을 수 있는 ‘비
밀이라는 이름의 지퍼 포켓도 있다. 큰 사이즈의 포켓도 2개
있어 실용성을 더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인들이 ‘스마일 포켓’
이라고 부르는 포켓이 백 뒷면에 자리한다. 샤넬의 아이코
닉 백은 샤넬 공방 중 하나인 베르뇌유-앙-알라트 아틀리
에(Ateliers de Verneuil-en-Halatte)에서 제작되며, 공
방은 파리 북부 와즈(Oise)에 위치한다. 최대 15시간 동안 1
백80개의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11.12 백도 여기서 탄생하
는데, 약 4년에서 5년의 훈련을 통해 모든 공정과 기술을 완
벽하게 익힌 장인의 손만 거친다. 베르뇌유-앙-알라트 아
틀리에에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2016년 높은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갖춘 기업에 주어지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Ateliers
de Verneuil-en-Halatte)’ 라벨을 획득하기도 했다.

“세계는 상징과 숫자로 표현된 일련의 진동이다”

버지니 비아르는 가브리엘 샤넬 이후 하우스를 이끌어 된
최초의 여성. 예쁘고 우아한 ‘여성 백’을 디자인한다는 개
념을 넘어 걷고, 뛰고, 그림을 그리고 창조하기 위해 손의





자유가 필요한 진짜 여성을 위한 백을 만들고자 했던 그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혁신 그 자체였던 2.55 백을 재해석한 11.12 백에는 샤넬 여사에서부터 칼 라거펠트, 그리고 버지니 비아르의 손을 거쳐 이어지고 있는 비밀과 숨겨진 스티치, 은밀한 제스처가 담겨 있다. 백을 수트나 드레스에 매치하는 다양한 조합을 좋아했던 가브리엘 샤넬은 백이 레이어링 또는 반전 효과를 주며 의상과 어울릴 때 매력이 배가된다고 생각했다. 버지니 비아르 역시 이러한 조합을 21세기에 맞게 재해석해, 이 백을 매우 여성스러운 모던함의 일부로 만들어냈다. 청바지와 잘 어울리는 백, 자주 재킷과 어울리는 백, 롱 코트의 완벽한 실루엣을 돋보이게 하는 백 같은 아이디어는 마치 완벽한 악보와도 같다. 단순한 백 이상인 2.55와 11.12는 과거와 현대 여성에게 신비 가득한 상징적인 액세서리로 자리매김했다. 자유의 향기이자 몸에 걸친 문장, 착용자의 개

성을 드러내는 자유로운 실루엣, 흉내 낼 수 없는 파리지앵 무드, 사상, 제스처와 우아함에 대한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 전설적인 핸드백을 통해 샤넬 여사가 대대로 전해준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고, 이상을 위해 노력하며, 차별성과 특이점을 개발하는 능력이다. 이는 샤넬 여사 자신도 평생 구현했던 가치. 오늘날 버지니 비아르가 이러한 유산에 새로운 면을 더하고 있다.

“실례지만 남은 방 있나요?”

사랑을 탐구한 영화 〈남과 여(A Man and A Woman)〉(1966)에는 이와 같은 대사가 등장한다. 샤넬은 영화계와 오랜 인연을 이어나가고자 했다. 샤넬의 아티스틱 디렉터 버지니 비아르 또한 언제나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왔다. 누벨바그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이르

리엘 샤넬이 그랬던 것처럼 친한 감독들과 교류하고 있다. 이번 아이코닉 핸드백 캠페인에는 도발이 등장한다. 도발은 해안에 자리한 휴양지로 1921년 마드모아젤 샤넬이 자신의 이름을 딴 모자 부티크를 열고 1913년 첫 오트 쿠튀르를 선보인 곳. 원작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은 사랑이 폭발하는 장면에서 샤넬 핸드백을 든 모습을 보여준다. 이네즈 & 비누드가 촬영하고 연출한 이번 캠페인은 영화의 일부 장면과 대사를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 영상 속 주인공은 영화계 전설로 2018년부터 샤넬 앰배서더로 활동해온 페넬로페 크루즈와 어딘가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는 남자를 섬세하게 구현한 켈트 배우 브래드 피트다. 페넬로페 크루즈는 감정을 숨기려는 듯 조심스레 백을 움켜쥐는다. 그의 손가락이 쿨팅 레더를 어루만지는 순간 잠금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어깨에 걸친 체인이 눈에 들어온다. 모던한 직사각형의 완벽한 실루엣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샤넬 핸드백은 흠잡을 곳 없는 매력으로 독보적이면서도 갈망하게 만드는 매력을 품고 있다.

호텔 레스토랑 테이블 위 남과 여 사이에 위치한 이 전설적인 백은 삶의 특별한 순간, 가장 깊은 욕망을 주창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 백이 전하는 것은 마침내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답함이다. 영화에서 샤넬의 전설적인 아이코닉 백은 판타지, 대담함, 자유라는 세 가지 감정이 빚어내는 향기를 발산한다. 마치 삶과 허구 사이에 그 어떤 경계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의미, 대비, 신비로 가득한 샤넬 백은 하나의 상징으로 기분에 따라 변신한다. 데이 백으로 착용하다 이브닝 백으로 착용할 수도 있고, 잠 못 이루는 밤부터 잠에서 깨는 새벽까지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준다. 컬렉션을 거듭하며 샤넬 백은 평생을 함께하고,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백으로서 다양한 컬러, 형태, 소재로 변신하고 있다. 자유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샤넬의 아이코닉 백에는 레더와 함께 엮은 체인 링크처럼, 샤넬 하우스의 역사, 현재, 과거,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샤넬 백은 나만의 공간이자 은신처, 나를 재창조할 수 있는 장소다. 지난 수년간 여러 샤넬 컬렉션을 통해 수많은 디자인으로 아이코닉 백을 기리며, 독보적인 아이콘이자 전설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interview with_ Bruno Pavlovsky(샤넬 패션 총괄)

샤넬의 아이코닉한 백을 포함한 패션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브루노 파블로브스키(Bruno Pavlovsky)를 줌으로 만났다. 한국은 4시 30분, 파리는 오전 9시 30분이니 이제 방금 출근해 모닝커피 한잔했을 터. 그래서인지 그는 에너지가 넘쳤다.

Stylechosun 백은 가브리엘 샤넬이 여성의 두 손에 자유를 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1.12 백은 현대 여성에게는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 Bruno Pavlovsky

11.12백은 가브리엘 샤넬, 칼 라거펠트, 버지니 비아르를 모두 거쳐 간 샤넬의 자산이다. 1955년 2월에 탄생한 2.55 백은 항상 샤넬 패션을 동행했다. 처음엔 마드모아젤 샤넬, 그리고 칼, 지금은 버지니에 의해 백은 계속 모던하게 재해석되어 같은 백이지만 항상 다른 느낌을 준다. 특별한 마무리, 다양하고 특별한 가죽, 다양한 색상과 소재로 나왔고, 트위드로도 출시되었다. 나는 이런 지속적인 재해석이 오늘의 11.12 백을 탄생시켰다고 본다. 샤넬에 11.12 백은 백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샤넬 브랜드의 영원한 아이콘인 동시에 모던하고 트렌디하며 여지 없는 백이다. 샤넬은 패션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버지니가 샤넬 백을 어떻게 연출했는지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샤넬 쇼에 등장한 2.55 백, 11.12 백, 그리고 많은 11.12 백을 재해석한 신상 백들은 사이즈가 작든 크든, 모두 샤넬을 상징하는 샤넬 여성의 패션을 완성하는 아이템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새로 나온 11.12 백 캠페인에서도 페넬로페 크루즈가 백을 들고 있는데, 브래드 피트와 페넬로페 크루즈, 두 배우와 함께 샤넬 백이 세 번째 아이콘으로 등장한다.

Stylechosun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재해석을 거쳐온 셔츠 매 시즌 고객들이 여전히 샤넬의 아이코닉 백을 찾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인가? Bruno Pavlovsky 샤넬의 비결은 새로운 컬렉션이 나올 때마다 아이코닉한 것과 패션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것을 해낸 브랜드는 샤넬뿐이다. 샤넬은 아이코닉하면서 매우 트렌디하기 때문이다. 항상 새로운 소재와 컬러를 소개하면서 특별한 것을 만든다. 11.12 백은 샤넬이 추구하는 패션이 원치 보여주는 중요한 아이템이다. 패션 액세서리인 동시에 아이코닉 백인 셈이다. 아이코닉한 백의 또 다른 가치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인데, 11.12 백도 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딸에게 물려주는 백이 되었다. 그 결과 11.12 백은 한 고객의 백이면서 고객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백이 될 수 있는데, 백의 이러한 아이코닉한 속성을 샤넬은 꾸준히 지켜나갈 것이다. 명품업계에서 아이코닉과 패션, 이 두 가지를 다 잡히기가 정말 어렵다.

Stylechosun 샤넬의 아이코닉 백을 제작하는 베르뇌유-앙-알라트 아틀리에에는 샤넬의 다른 백 공장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나? 무엇이 특별한지? Bruno Pavlovsky 이 공장에서 처음부터 샤넬 11.12 백과 2.55 백을 제작했기 때문에 특별하다. 아이코닉 백의 스토리가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장의 제작 능력을 지키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베르뇌유에서 아이코닉 백을 제작하는데, 사실 11.12 백은 제작하기 가장 까다로운 백이다. 가브리엘 샤넬도 2.55 백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때 쿠티르(couture) 기법을 사용했다. 이 백은 재질을 재단하는 것처럼 제작된다. 이것이 포인트로 베르뇌유 공장을 가보면 다른 공장과는 달리 수공으로 바느질을 하고 백을 뒤집는데, 이런 기법은 쿠티르의 전통을 살려 백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나는 이런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준 높은 다른 공장에 가보면 장인들의 기술력은 좋지만 샤넬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는 없다. 이 백은 2백78여 개의 공정을 거쳐 탄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제작하고 있다. 기계를 이용하는 모델도 있지만 사람의 손을 꼭 거쳐야 하는 모델도 있다. 백이 완벽하지 아니하는 최종 단계에서 백을 뒤집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완벽해야 한다. 가장 까다로운 기준은 백을 정면에서 봤을 때 호트라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장인의 기술이 뛰어나야 실수 없이 완벽한 백을 제작할 수 있는 실수를 하면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나에게 베르뇌유는 최고의 장인들이 샤넬 백을 제작하는 최고의 공장이다.

Stylechosun 새로운 아이코닉 백을 탄생시키기 위해 샤넬은 커커이 살린 헤리티지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스토리를 입히는지? 샤넬만의 특별한 스토리 또는 작업 방식이 궁금하다. Bruno Pavlovsky 새로운 아이코닉 백을 탄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새로운

패션 백은 샤넬에서 많이 출시했다. 샤넬 22 백이 패션 백의 좋은 예다. 그전에는 샤넬 19 백이 있었다. 그러나 샤넬의 아이코닉 백은 하나밖에 없고 사실 더 많은 필요가 없다. 아이코닉과 패션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은 쉽지 않다. 매년 컬렉션을 발표할 때 신경 써야 하고, 버지니의 새로운 컬렉션과 잘 어울리면서 아이코닉 스타일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코닉 백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본다. 이 하나의 아이코닉 백을 가지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이 의미 있기 때문이다. 샤넬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아이코닉 백과 더불어 수많은 패션 아이템과 핸드백이 있다는 것이다. 패션 핸드백은 시즌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즌이 자연히 구할 수 없기도 하지만, 아이코닉 백은 다르다. 이 핸드백은 영원을 상징한다.



“샤넬의 비결은 매년 새로운 컬렉션이 나올 때마다 아이코닉한 것과 패션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해낸 브랜드는 샤넬밖에 없습니다”

Stylechosun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제품의 가치로 장인 정신을 잃어온다. 샤넬의 핸드백 장인들은 어떤 교육과 경험을 쌓는가? 다른 브랜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Bruno Pavlovsky 샤넬의 장인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요즘은 실력 있는 장인이 많기 때문이다. 가브리엘 샤넬이 백 제작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의 금속 장식을 사용하고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 백에 적용되는 모든 디자인 요소를 제작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뛰어난 장인이 있어야 백 제작이 가능했는데, 이 백을 처음 제작한 공장이 베르뇌유다. 그때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다. 강봉기의 작은 공장이었지만 뛰어난 장인들이 있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샤넬은 이 공장과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샤넬이 제작하는 다양한 백을 보면, 프랑스는 아이코닉한 샤넬 백처럼 각이 잡힌 백(structured)이 많고 이탈리아 백은 더 크고 각이 없는 부드러운 백(soft)이 많다. 어찌 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장인 기술과 스타일이 잘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샤넬의 아이코닉 백은 각이 잘 잡힌 프랑스 장인 기술을 보여주는 것 같다. 사실 처음부터 샤넬은 장인 기술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샤넬의 성공에 기여한 일등 공신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확장하고 디자인을 개발할 때뿐 아니라 컬렉션을 개발할 때, 제작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꼭 필요했다.

Stylechosun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패션에서도 시계(모바일 폰이 대체)나 지갑(지갑, 동전이 잠금 사라짐) 등이 사라지고 새로운 카테고리도 생겨나고 있다. 백이라는 아이템의 미래는 어떨까? 샤넬 백은 이런 사회 흐름에 어떤 영향을 받으며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있나? Bruno Pavlovsky 좋은 질문이다. 백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사실 질문의 요지는 '미래에 여성들이 백을 더 이상 안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명품 산업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전통적인 작은 가죽 제품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지갑도 다시 살아났다. 샤넬 지갑도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현금보다 카드가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갑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작은 가죽 제품 카테고리도 고정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매출이 좋다. 이 카테고리도 샤넬에 중요하기 때문에 패션 액세서리로 개발해 다양하게 연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백, 가죽 백을 소개했다. 일종의 나만의 패션 선언을 백으로 표현하는 건데, 시장의 반응이 좋다. 클래식한 백을 착용할 때도 패션 액세서리와 함께 연출하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앞으로 백이 사라질 위험은 없다고 보고, 백은 당분간 우리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백은 패션 실루엣을 완성해주는 필수품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와 색상으로 백은 패션을 완성해준다. 샤넬이 다른 브랜드와 확실하게 다른 점은 샤넬에 백은 커스텀 주얼리와 수조처럼 패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Stylechosun 우리나라 고객들이 샤넬 핸드백의 큰 팬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과 관련해 매우 민감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샤넬 CEO로서 입장이나 향후 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 Bruno Pavlovsky 매년 가격 인상이 있는데 최근에 가격이 인상되었다. 샤넬은 안정적인 가격 정책을 추구하며, 샤넬의 가격 정책은 두 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다. 첫째는 10% 범위 안에서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가격이 정렬되었다는 것이다. 여행 중 구매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구매한다면 한국, 일본, 홍콩 어디든 가격은 같다. 샤넬의 모든 패션 제품은 이러한 가격 원칙을 지킨다. 두 번째는 가격 책정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샤넬의 포지셔닝은 공극의 럭셔리인데, 아이코닉 백의 가격이 샤넬 재킷의 가격과 비슷하다. 그리고 가격 인상은 제조 원가와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품질에 대해 이야기하면, 샤넬 제품에 뽀송을 수 없는 양가죽(lambskin)도 샤넬은 최고를 고집하는데, 최고의 가죽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다음엔 인력이다. 샤넬 백을 제작하는 장인들도 샤넬에 소중하는데, 이들의 기술과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년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6% 인상되었는데, 환율 때문에 매년 약간 다르지만 3~10% 범위에서 인상을 한다. 평균적으로 7~8%다. 사용하는 소재의 품질과 전문가를 제대로 대우하기 위해 이러한 가격 인상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통화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다. 샤넬의 가격 정책을 보면 아이코닉 백이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는 매 시즌마다 소개되는 신상 백(novelty)이 조금 더 저렴한데, 이 카테고리도 샤넬에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가격 정책 덕분에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Stylechosun 이번 2024/25 F/W 레디-투-웨어 컬렉션 중에는 제품 중 어떤 스타일이 개인적으로 가장 샤넬스럽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 이유는? Bruno Pavlovsky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패션 실루엣이다. 도발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2024/25 가을-겨울 레디-투-웨어 컬렉션의 멋진 트위드와 니트웨어를 보면 샤넬스럽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고, 백과 슈즈를 액세서리로 잘 활용해 가장 샤넬스러운 것을 보여준다. 이번 2024/25 가을-겨울 레디-투-웨어 컬렉션이 최고의 컬렉션 중 하나라고 보면, 샤넬 부티크에는 9월 말에 입점할 예정이라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기다려야겠지만 이 컬렉션이 샤넬의 시그니처 컬렉션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모던하고 샤넬스럽고 우리가 사랑하는 컬렉션이다.

레드 프린트 셔츠
4백70만원, 브라운 쇼츠
2백40만원 모두 **발렌티노**.
라스타드 로퍼 1백53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임브로이디드 오피서 칼라 재킷
가격 미정, 임브로이디드 코튼
카디건 5백12만원, 클래식 코튼 셔츠
1백39만원, 임브로이디드 플리티드
쇼츠 4백60만원 모두 **루이 비통**.

PERFECT
FOR
NOW

이번 시즌, 보다 핫하고, 보다 힙한 남자들의
재킷 스타일.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파피론 소재의 하다 카디건
3백52만원, 코튼 소재의 코라 재킷
4백52만원, 라넨 소재의 엘리아 울로
셔츠 1백32만원, 코튼과 라넨 소재의
조아쓰 셔츠 1백32만원, 카프 스킨
소재의 쿠미호모 샌들 1백67만원
모두 **로로피아나**.



레더 블루룸 재킷 가격 미정 **토즈**,
프린트 장식 셔츠 가격 미정 **에트로**,
포플린 셔츠 가격 미정 **프라다**.



코트 소재의 블랙 재킷,
체크 셔츠, 테크니컬
파브릭 그레이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핸드 태입러드 코듀로이 수트 재킷,
옐드 온 앤드 셔츠, 핸드 태입러드
코듀로이 팬츠, 니트 캐시미어 타이,
태슬 장식의 키프 스킨슈즈 모두
가격 미정 **탈프 로렌 퍼플 리벨**.



블랙 레더 오버코트
1천3백90만원, 베이지
라빈 셔츠 1백70만원, 베이지
올 쇼츠 1백45만원 모두 **프라다**.

포켓 베스트 가격 미정,
싱글브래스트 모헤어 울 재킷 4백85만원,
울 및 모헤어 쇼츠 1백48만원,
기모 레더 더블 수츠 1백65만원
모두 **프라다**.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고웅호**(GOST Agency)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프라다 02-3442-1830
로로피아나 02-546-0615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바리니** 02-2015-4655
루이 비통 02-3432-1854
에트로 1644-4490
토즈 02-3448-8233
핀디 02-544-1925
에르메스 02-542-6622
밀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Travel Maker

출장 혹은 여행길에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견고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의 트롤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리모와 트롤리 컬렉션

(왼쪽부터 차례대로)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로고 디자인을 적용해 도화적이고 감각적인 무드를 부여하며, 견고함을 자랑하는 그레이 GG 수프림 캔버스-실버 알루미늄 캐빈 트롤리 #463021원 **구미**, 문의 02-3452-1521, 고급스러운 광택을 지닌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마감했으며, 전면에 위치한 하우스의 엠블럼이 특징이다. 360 저속을 주행 할 때 바퀴와 접지 가능한 멀티 스톱 시스템 핸들 비틀 장치에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MY4810 캐빈 트롤리 1백25만원 **웅렬**, 문의 1877-5408, 견제한 블루 컬러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내부에 메시 지퍼 포켓이 달린 지퍼 칸과 높이 조절이 가능한 플렉스 다바이더로 구성되어 이동 시 짐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준다. 고성능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한 리모와 에센셜 트랙 플러스 씨 블루 1백06만원 **리모와**, 문의 02-548-3920, 모사티를 블랙 니트 가죽으로 장식하고 하우스의 클래식 비제트스 캔버스로 보디를 완성한 오토마 비제트스 트롤리 2백75만원 **MCM**, 문의 02-540-1404, 견고한 빗살무늬의 모던한 실루엣이 특징이며, 내부에는 선반과 고정용 스트랩을 포함해 어디서든 휴대용 옷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19 디그리 알루미늄 롤링 트렁크 2백40만원 **투미**, 문의 02-539-8160, 이동 중 마찰 저항을 낮추고 부드럽게 굴러도록 고안한 롤-바어링 이중 휠을 장착했으며, 100%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RECYCLEX™ 인감을 적용한 토이즈 플로팅 골드 #4429 천원 **샘스-아트 레드**, 문의 02-2007-2943 에디터 **윤지영**

1



Spirit of Journey

여행을 더욱 설레게 만들어줄 멋진 러기지와 실용성이 돋보이는 데일리 백 시리즈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경험하고 싶다면 리모와가 매력적인 답안이다. 수도권 내 신세계백화점에 최초 오픈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리모와 매장에서 유구한 장인 정신과 현대 기술의 정밀성으로 완성한 리모와의 아이템과 헤리티지를 경험할 수 있다.

여행객으로 붐비는 공항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그리고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하는 프리미엄 러기지, 리모와가 신세계백화점 6층에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 첫 포문을 연 리모와의 신세계백화점 매장은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알루미늄 소재와 따뜻한 느낌을 전하는 우드가 조화를 이뤄, 모던하고도 클래식한 감성을 동시에 아울러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끈다. 특히 이번 매장은 곡선형 구조의 파이프로 구성된 디스플레이 선반을 통해 감각적인 모던함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파사드에는 라이팅으로 그루브 디자인을 표현한 메탈 월과 모노그램의 배치로 브랜드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했다. 또 매장 한편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오리지널 실버 컬렉션 제품과 함께 재생 나일론 소재로 제작한 시그니처 백 컬렉션을 배치해, 수트케이스부터 백 시리즈까지 아우르는 토털 모빌리티 브랜드로서의 리모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매장에서는 시그니처인 알루미늄 소재의 오리지널과 클래식 컬렉션부터 가벼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에센셜 컬렉션, 그리고 두 가지 소재의 조합이 인상적인 하이브리드 컬렉션까지 다양한 수트케이스 시리즈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네버 스틸 컬렉션과 알루미늄 등의 소재를 이용해 완성한 휴대용 크로스 백 퍼스널, 그리고 리모와만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그니처 컬렉션까지 다채로운 백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그 밖에 커스터마이징 핸들과 휠, 아이폰 케이스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 여행에서는 물론 일상에까지 이어지는 리모와의 세계가 펼쳐진다. 주소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6층 문의 02-3479-1936 에디터 **윤지영**

2



3



1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전하는 우드 소재와 미니멀한 알루미늄 소재의 조합이 돋보이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6층에 위치한 리모와 매장 전경. **2** 매장 한쪽 벽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오리지널 실버 컬렉션 제품과 함께 재생 나일론 소재로 제작한 시그니처 백 컬렉션을 배치한 리모와 매장. **3** 알루미늄과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완성한 휴대용 크로스 백 퍼스널과 아이폰 케이스를 진열한 디스플레이. **4** 커스터마이징으로 완성한 리모와의 오리지널 실버 컬렉션 제품이 진열된 디스플레이.



여리워진 파스텔컬러감이 돋보이는 라넨과 울,
그리고 실크 소재로 제작한 루스 셔츠, 독특한
스타일의 넥 칼라 포인트에 고급스러운 핏감을
자랑하는 라넨 소재의 도미니 재킷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은은한 광택감의 핑크
니옴본 소재로 완성해 영한
감성을 부여하는 셀린느 테디
가격 미정 셀린느 바이 에디슬라먼,
문의 1577-8841



Light Breeze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효과적이고 패셔너블하게
대응할 수 있는 럭셔리 스프링 아우터.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재킷이 아닌 셔츠 실루엣으로 완성해 유니크하고 캐주얼한
무드를 배가한 셔츠 재킷 1백30만원대, 재킷 안쪽에
레이더링하면 더욱 포멀하고 단정한 무드를 선사하는 질펀
1백30만원대 모두 토즈, 문의 02-3438-6008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패턴을 재킷 전체에 은은하게 더해
우아한 멋스러움을 배가하는 재킷 4백30만원, 감각적인
컬러감이 특징인 100% 실크 소재의 블라우스 2백30만원
모두 발렌타노, 문의 02-2015-4655 에디터 윤자경



아이사틴트 신형, 김보민

Spring Nuance

한결 따뜻해진 바람과 청량한 하늘로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때, 기분 좋은 새 뉘앙스를 선사할 퍼퓸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택시 아레지스터블 오 드 퍼퓸 베리 플로럴 꽃을 증류해 추출한 로즈 에센스와 로즈 워터를 증류해 얻은 로즈 콘센트레이트를 결합해 갓 지른 장미 향을 선사한다. 아가시 시드워드의 베이스 노트를 추가해 자연스러운 무드를 부여한다. 80ml 21만4천원, 문 의 080-801-9500 아틀리에 데 조 벨랑 폴리크롬을 설파랑이 넘치고 심플한 느낌의 모던 향수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 만다린과 레몬으로 시작해 재스민 향으로 이어지며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고, 이어 이끼 향과 머스크, 안보록산 노트가 깊이를 더한다. 100ml 29만원, 문 의 1670-1329 아스티에 드 발리트 핑트 라 줄리 갓 수확한 싱싱한 아로마를 연상시키는 향으로 민트, 바질, 유칼립투스과 시트러스 향이 가득한 베르가모트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생기 넘치는 그레나딘 향이 오랫동안 피부에 머무는 것이 특징이다. 30ml 14만8천원, 문의 0507-1328-7098 바버리 허 페탈 오 드 퍼퓸 재바꽃과 재스민의 플로럴 향기가 블랙라이트, 블루베리, 라즈베리의 달콤한 톨 노트와 만나 유니크하면서도 상쾌한 아로마틱 여운을 선사한다. 이어 크리미한 애플과 부드러운 우디 향으로 마무리되며 성세함을 더한다. 88ml 23만7천원, 문의 080-850-0708 티파니 앤코 로즈 골드 인센스 청량한 시트러스와 달콤한 프루티 향기로 시작해 핑크 페파가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준다. 이어지는 플로럴 부케는 타키시 로즈 오일과 오라스 버터를 블렌딩한 오렌지 플리워와 재스민 삼박으로 세련미를 더했다. 50ml 20만1천원, 문의 080-850-0708 아무아쥬 디아 고급스러운 비누 향을 떠올리게 하는 퍼퓸으로 시틀라멘의 투명한이 베르가모트의 신선함, 세이지의 싱그러움과 만나 대조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이어 피오라의 부드러운 향과 레몬 향의 로즈 에센스로 상쾌함을 더한다. 베이스에는 화이트 머스크와 바닐 라를 더해 더욱 풍성한 향을 선사한다. 100ml 48만원, 문의 1670-1329 에디터 윤자경

아사틴트 신형, 김보민

editor's Pick

바쁜 현대인들의 지친 피부를 생기 있게 만들어줄 뷰티템 13. photographed by **oh hyeun sa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누텍스처 비온시 림 트리트먼트 입술에 닿으면 시원한 느낌을 주는 메탈 소재의 애플리케이션이 특징. 오일 함량을 최소화했지만 바르는 즉시 수분감 넘치는 텍스처로 입술에 탄력과 광채를 부여한다. 또 볼륨 개선을 위한 콜라겐, 스킵린, 펩타이드를 함유해 입술 피부를 보호한다. 10ml 2만2천원. 문의 070-8787-6008_by 에디터 윤자경

클레르도 보테 디 프레스스 림스틱 #3 다이아몬드 비르지자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제롬, 은화한 블랙티 향과 은밀한 시트러스 향 위로 섹슈얼한 오리엔탈 향이 섞여 매우 중성적이고 입체적이다. 끈적임 없이 가벼운 텍스처라 부드럽게 흡수되는 것도 장점. 50ml 2만5천원. 문의 02-6956-0053_by 에디터 정리윤

페시 더 뉴 에어 핸드크림 휴대편만큼 핸드크림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에디터의 거대로운 거친에 제롬, 은화한 블랙티 향과 은밀한 시트러스 향 위로 섹슈얼한 오리엔탈 향이 섞여 매우 중성적이고 입체적이다. 끈적임 없이 가벼운 텍스처라 부드럽게 흡수되는 것도 장점. 50ml 2만5천원. 문의 02-6956-0053_by 에디터 정리윤

아쿠아 ABC 레드독 오일 톱 클렌저 이렇게 완벽한 클렌저가 있구나! 입자 고운 고급 가루가 들어 있어 스크럽까지 가능한 울안된 톱 클렌저다. 제롬 이듬서럼 오일 제형으로 메이크업과 피부를 녹여주는데, 물을 조금 적셔서 거품으로 부드럽게 클렌징할 수 있다. 사과, 비트, 당근을 담아 피부에 영양까지 더해준다. 일석조 이아텔 120ml 3만9천원. 문의 070-4647-3182_by 에디터 신정임

다들 뷰티 다들 오빠비 글로우 메이크업 #011 핑크 메이크업 시 어떤 각도에서든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 연출에 공을 들이는데, 이 제품은 가볍게 발라주면 미세 필그먼트가 들어 있어 비르는 즉시 조명을 켜듯 화사한 얼굴을 만들어준다. 보들보들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콧등, 광대뼈 위에 톱톡 짝아 발라주면 자연스러운 광채 피부 완성! 11ml 6만9천원. 문의 080-342-9500_by 에디터 신정임

드림크 엘리먼트 보타비타 리페어 크림 피부 자극으로 고민이라 크림 하나를 사더라도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편. 바터치럼 부드러운 텍스처에 식물 유래 성분들을 배합한 크림의 핵심 성분인 6-바타리피드 콤플렉스를 더해 하루 중일 촉촉한 것은 물론 손상된 피부 장벽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느낌. 50ml 9만4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신정임

라프래리 스킨 케어 아이 리프트 밝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눈 주위 섬세한 피부를 관리해 눈매를 또렷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 케어아 인피니트와 케어아 마이크로-뉴트리언트가 한 번의 펌프만으로 신세라미드 함유하여 눈가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실카한 제형으로 변한다. 꾸준히 사용했다니 눈가 주변의 탄력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ml 6만2천원. 문의 02-6390-1170_by 에디터 윤자경

발롱 루마니티 루미센스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듯해 마음에 쏙 드는 제롬. 마백 제품은 건조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촉촉한 수분 안을 한 건 양하는 느낌이 들었다. 비르지자 피부에 은은한 광채가 들고, 며칠 사용하니 피부가 한층 더 밝아진 느낌이 든다. 30ml 3만원. 문의 070-4352-5203_by 에디터 신정임

아베다 리미티드 보태니컬 리페어 스킨케어 오버나이트 세럼 매년 4월 지구 의 달 캠페인을 전하는 아베다에서 출시한 리미티드 에디션 패키지의 오버나이트 세럼. 밤에 바르고 자간 한만 되니 매우 간편하고, 매일 사용하면 무척한 머릿결이 놀랍도록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스트 디퍼터 리얼루 섀넌조의 알파스트를 담아 더욱 특별한다. 100ml 6만1천원. 문의 02-3440-2905_by 에디터 신정임

이슬 아메리카인 페이스 토닉 반 타스프 정도를 얼굴에 손바닥 전체로 지긋이 누르듯 노리게 흡수시켜 수분을 공급해주면 피부가 하루 중일 쫄쫄하다. 빠르게 스며드는 가벼운 제형으로 스킨케어 단계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자꾸 손이 간다. 100ml 6만3천원. 문의 1800-1987_by 에디터 정리윤

로아비 피오니 엔 화이트 마스크 오 드 퍼퓸 베스트셀링 오 드 퍼퓸 2종을 18ml 미니 사이즈의 울리브영 리미티드로 출시했다. 그중 피오니 엔 화이트 마스크 오 드 퍼퓸은 달콤한 카시스 향기를 시작으로 피오니와 불가리아 로즈의 몽성한 이들을 도를 거쳐 차분한 화이트 마스크로 마무리되는 포근한 비누 향기가 매력적. 이번 출장에 함께할 예정이다. 18ml 4만9천원.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정리윤

에스티 로더 라미네이션 수프라이즈 나이트 파워 비온스 크림 밤 동안 피부를 회복시키고 피부 본연의 코어 힘을 길러주는 궁극의 크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비번 일대로 피부 관리를 할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 적극 추천한다. 콜라겐 부스터 테크놀로지를 담은 'CollaNight'을 함유해 피부 밀도를 극대화한 단단한 피부결을 선사한다. 75ml 22만2천원. 문의 02-6971-3212_by 에디터 윤자경

샹엘리 루미세인트 아이사이드 마스크 샹엘리에서 론 컬러로 선보였다가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 정식으로 샹엘리 아이사이드 라인으로 출시했다. 세련된 사니온 컬러로 발색되며, 미세 입자 들어 있어 영롱한 눈매를 완성해준다. 켈 파우더 파우더로 하루 남일 없이 가볍게 발라준다. 4월 지구의 달을 맞아 매월 중 위기 등을 보호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한다니 더욱 뜻깊다. 2.5g 8만9천원. 문의 070-4370-7511_by 에디터 신정임



SHOWROOM



에트로

에트로 탄생 1주년을 맞이한 벨라 백 이블리아 럭셔리 브랜드 에트로에서 첫선을 보인 핸드백, 벨라의 탄생 1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버전의 벨라 백 에디션을 공개했다. 블랙, 크림, 래디시 퍼플, 라이트 블루 등 다양한 컬러로 구성했으며 기존 가죽 소재 외에도 라피아, 코튼 등 여러 소재와 수공으로 수를 놓은 플로럴 패턴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46-1969



막스마라



에르메스

펜디 2024 S/S 'Make Up Your Peekaboo' 하우스의 노하우와 장인 정신을 담아 선보이는 스페셜 프로젝트 'Make Up Your Peekaboo'. 이번 프로젝트는 펜디의 아이코닉한 파우치 백을 꾸밀 수 있는 참, 스트랩, 스카프 등 다채로운 액세서리 선택으로 구성했으며, 공식 홈페이지(fendi.com) 및 전 세계 일부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4-1925

에르메스 트레사주 에펠스트 출신 에르메스에서 새로운 테이블웨어 컬렉션인 '트레사주 에펠스트'를 선보였다. 매종의 가원인 마구 장식과 브래딩(braiding)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번 컬렉션은 레몬과 민트 등 포인트 컬러를 더했으며, 새롭게 출시한 할로 플레이트 10개를 포함해 총 27개의 다채로운 테이블웨어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문의 02-542-6622

막스마라 블레이자와 함께 선보이는 셋업 스타일링 막스마라가 다양한 재질 아이템을 활용한 다채로운 세트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스트레치 코튼 또는 라틴 소재 등을 사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블레이자와 와이드 팬츠를 매치해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하거나 볼드한 디자인의 벨트를 더해 클래식한 분위기를 담은 오피스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문의 02-511-3935



펜디

부가부 파라스파라 서울에서 만나는 부가부 베이비룸 부가부에서 서울 북한산국립공원 부근에 위치한 파라스파라 서울과 협업해 부가부 베이비룸을 론칭했다. 0~24개월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을 위한 스페셜한 객실로, 해당 공간에는 달러스 유모차인 부가부 폭스, 자라프 하이차어, 접이식 아기 침대인 스타더스트를 비롯해 부모와 자녀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문의 1577-0680

인피니티 2024 델쿠르 X 컬렉션 파티컬리에르 리프 레전더이션 인피니티가 디자이너 크리스토프 델쿠르와 컬렉션을 파티컬리에르의 제롬 오몽이 참여한 프라이빗한 컬렉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델쿠르 컬렉션



선과 컬렉션 파티컬리에르, 두 브랜드의 개성이 담긴 소품을 소개하며 델쿠르 컬렉션 신제품인 'NIN' 테이블도 함께 공개했다. 문의 02-3447-6000

리모와 새롭게 탄생한 베네치아 케이스 리모와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베네치아 케이스를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두껍기 위로 열려 내용물을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으며 마스트, 물병 등 액체류를 새워서 보관할 수 있는 보틀 고정 밴드와 수납력이 좋은 지퍼 포켓, 거울 등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02-546-3920



리모와



부가부

FASHION

LIFESTYLE



이슬릿, 아이링 등 다채로운 아이템을 공개했다. 문의 1522-9065

에르메스 워치 슬림 데르메스 르 시크레 데 세종 에르메스가 자연의 풍요로움과 환상적인 동물을 표현한 '슬림 데르메스 르 시크레 데 세종'(Slim d'Hermès Le Sacre des Saisons)'을 공개했다. 파오디 에-펠, 잉글레이브, 미니아처 페인팅 등 수작업 기법을 통해 다이얼에 사계절의 변화를 담았으며, 4종류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했다. 문의 02-542-6622

골든듀 르 투르비옹 컬렉션 국내 대표 파인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에서 선보인 다이얼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르 투르비옹 컬렉션을 선보였다. 프랑스어로 '최고의'를 뜻하는 르 투르비옹은 소용돌이치듯 화려한 다이얼을 더해 활짝 핀 꽃을 연상시켜 팬던트, 이어링, 링, 총 3가지로 선보였다. 문의 1588-6576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셀프와인딩 물리엄 투르비옹 오픈워크 스위스 워치메이커 오데마 피게가 18K 골드 합금인 샌드 골드로 제작한 최초의 시계를 선보였다. 각도에 따라 화이트핑크 골드 소재가 은은하게 조화를 이루며, 정밀한 제조 공정을 통해 탄생한 오픈워크 무브먼트로 3차원의 건축적 구조를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553-1351

JEWEL & WATCH



이슬릿, 아이링 등 다채로운 아이템을 공개했다. 문의 1522-9065

에르메스 워치 슬림 데르메스 르 시크레 데 세종 에르메스가 자연의 풍요로움과 환상적인 동물을 표현한 '슬림 데르메스 르 시크레 데 세종'(Slim d'Hermès Le Sacre des Saisons)'을 공개했다. 파오디 에-펠, 잉글레이브, 미니아처 페인팅 등 수작업 기법을 통해 다이얼에 사계절의 변화를 담았으며, 4종류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했다. 문의 02-542-6622

골든듀 르 투르비옹 컬렉션 국내 대표 파인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에서 선보인 다이얼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르 투르비옹 컬렉션을 선보였다. 프랑스어로 '최고의'를 뜻하는 르 투르비옹은 소용돌이치듯 화려한 다이얼을 더해 활짝 핀 꽃을 연상시켜 팬던트, 이어링, 링, 총 3가지로 선보였다. 문의 1588-6576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셀프와인딩 물리엄 투르비옹 오픈워크 스위스 워치메이커 오데마 피게가 18K 골드 합금인 샌드 골드로 제작한 최초의 시계를 선보였다. 각도에 따라 화이트핑크 골드 소재가 은은하게 조화를 이루며, 정밀한 제조 공정을 통해 탄생한 오픈워크 무브먼트로 3차원의 건축적 구조를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553-1351



이슬릿, 아이링 등 다채로운 아이템을 공개했다. 문의 1522-9065

에르메스 워치 슬림 데르메스 르 시크레 데 세종 에르메스가 자연의 풍요로움과 환상적인 동물을 표현한 '슬림 데르메스 르 시크레 데 세종'(Slim d'Hermès Le Sacre des Saisons)'을 공개했다. 파오디 에-펠, 잉글레이브, 미니아처 페인팅 등 수작업 기법을 통해 다이얼에 사계절의 변화를 담았으며, 4종류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했다. 문의 02-542-6622

골든듀 르 투르비옹 컬렉션 국내 대표 파인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에서 선보인 다이얼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르 투르비옹 컬렉션을 선보였다. 프랑스어로 '최고의'를 뜻하는 르 투르비옹은 소용돌이치듯 화려한 다이얼을 더해 활짝 핀 꽃을 연상시켜 팬던트, 이어링, 링, 총 3가지로 선보였다. 문의 1588-6576

라프래리

BEAUTY



이슬릿, 아이링 등 다채로운 아이템을 공개했다. 문의 1522-9065

에르메스 워치 슬림 데르메스 르 시크레 데 세종 에르메스가 자연의 풍요로움과 환상적인 동물을 표현한 '슬림 데르메스 르 시크레 데 세종'(Slim d'Hermès Le Sacre des Saisons)'을 공개했다. 파오디 에-펠, 잉글레이브, 미니아처 페인팅 등 수작업 기법을 통해 다이얼에 사계절의 변화를 담았으며, 4종류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했다. 문의 02-542-6622

골든듀 르 투르비옹 컬렉션 국내 대표 파인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에서 선보인 다이얼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르 투르비옹 컬렉션을 선보였다. 프랑스어로 '최고의'를 뜻하는 르 투르비옹은 소용돌이치듯 화려한 다이얼을 더해 활짝 핀 꽃을 연상시켜 팬던트, 이어링, 링, 총 3가지로 선보였다. 문의 1588-6576

라프래리

* 장리윤(4면), 권유, 성영민(3면), 민정현, 윤자경(3면), 박현정, 신정임(2면), 지복현(2면)



SCARLETT JOHANSSON / GALLERIA BAG
A FILM BY JONATHAN GLAZER

PRADA

